

성평등 예술지원정책 제 2차 오픈 테이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였는가?

- 2016~2019 아르코 지원제도 성평등 팩트체크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
2019.10.10. (목)
오후 1시 30분~5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 예술지원정책 제2차 오픈 테이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였는가? 2016~2019 아르코 지원제도 성평등 팩트체크

2019. 10. 10.(목) 오후 1시 30분~5시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13:30~13:50	1차 오픈테이블 리마인드 & 피드백 - 강윤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위원장, 경희사이버대학원 문화예술경영 전공주임교수)
13:50~14: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 공연분야 성평등 팩트체크 - 김정이(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민간위원, 비커밍컬렉티브 대표)
14:20~14:5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 시각분야 성평등 팩트체크 - 장현선((주)장애파트너스그룹 대표)
14:50~15: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 문학분야 성평등 팩트체크 - 장은정(문학평론가)
15:20~15:40	휴식
15:40~17:00	자유토론



목 차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 공연분야 성평등 팩트체크
 - 김정이(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민간위원, 비커밍컬렉티브 대표)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 시각분야 성평등 팩트체크
 - 장현선((주)장애파트너스그룹 대표)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 문학분야 성평등 팩트체크
 - 장은정(문학평론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 공연분야 성평등 팩트체크

김 정 이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민간위원, 비커밍컬렉티브 대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였는가?

2016~2019 아르코 지원제도 성평등 팩트체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 공연분야

김정아 (비커밍컬렉티브 대표)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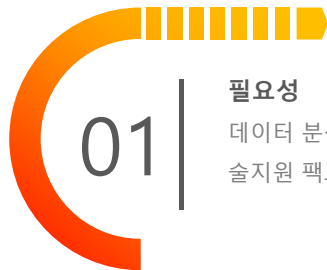
Contents



Contents



Contents



01

필요성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연분야 예술지원 팩트체크의 필요성



02

지원구조

공연분야 지원구조 이해



03

성비 격차

공연분야 성별 지원현황 분석



04

마무리

시사점



필요성



지원구조



성비격차



시사점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시대별 국가운영 목표 및 지향 가치





필요성



지원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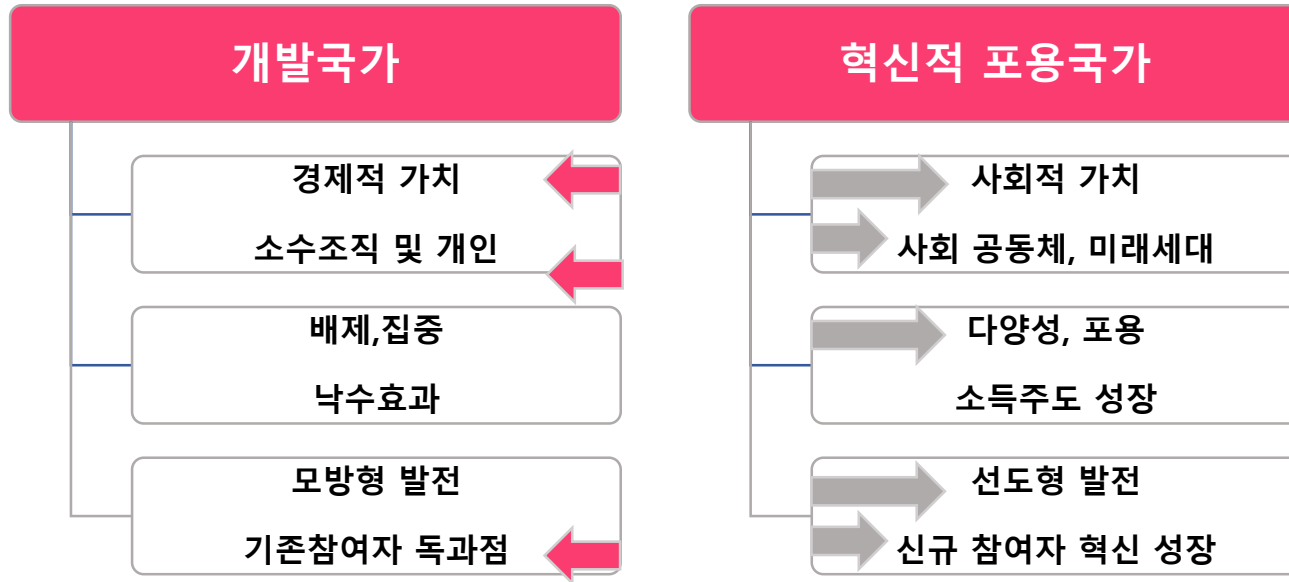
성비격차



시사점

Q1. 아르코의 지원제도는 개발국가를 향하는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하는가?

개발국가와 혁신적 포용국가의 특징 비교





필요성



지원구조



성비격차



시사점

Contents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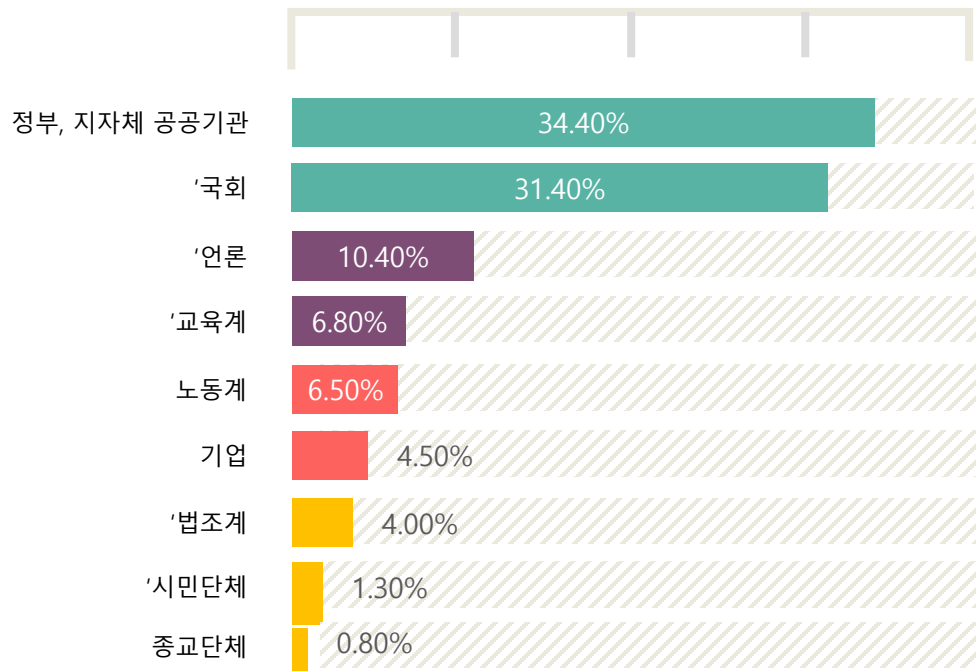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사회적 가치 우선 책임 주체





필요성



지원구조



성비격차



시사점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정부혁신 비전 체계도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정보를 낱알이 공개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열린 정부가 되겠습니다

국민중심 4대 행정혁신(데이터....)

비전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

목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10위권,
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

3대
전략



핵심
과제

사회적
가치 구현

- 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혁신 하겠습니다.
- ②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인사·조직·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참여협력

- ③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 ④ 정보를 낱알이 공개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열린정부가 되겠습니다.
- ⑤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정부

- ⑥ 국민이 원하는 공공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⑦ 국민중심 4대 행정혁신(데이터·창의·규제개혁·남비제로)을 실현하겠습니다.



필요성



지원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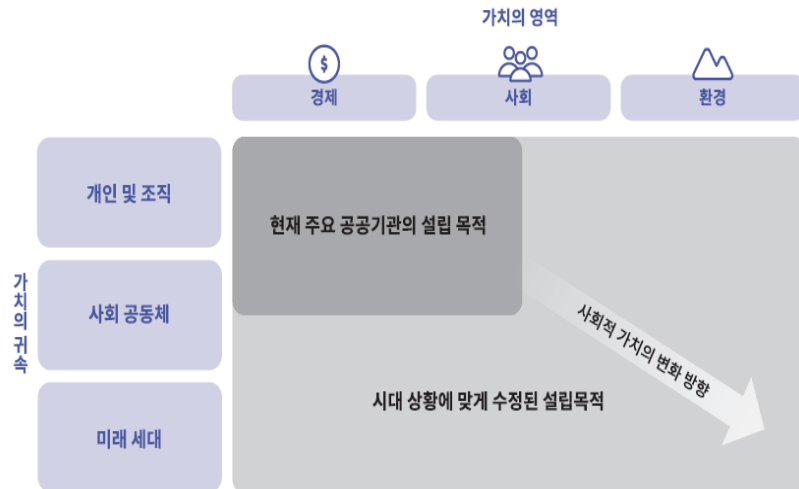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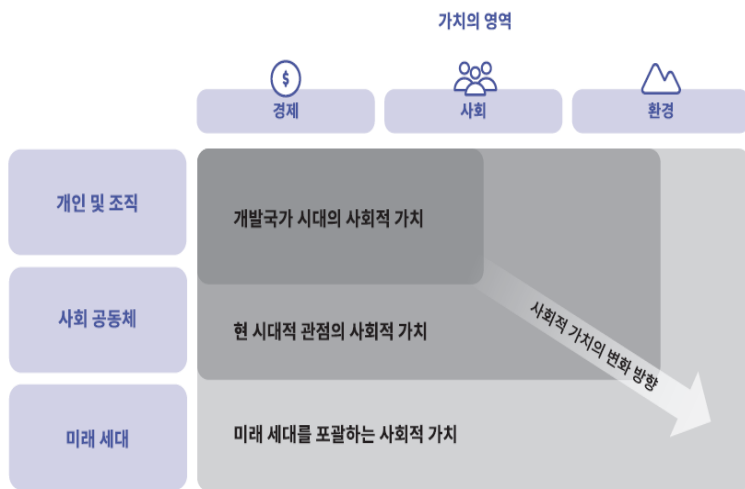
성비격차



시사점

Q2.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설립목적은 사회적 가치의 변화방향을 담고 있는가?

사회적 가치의 변화방향과 공공기관 설립 목적의 수정 방향





필요성



지원구조



성비격차



시사업

사회적 가치 3대 실현 분야

	TYPE 1	TYPE 2	TYPE 3
정의	설립 목적 달성 (공공성 및 공공성)	조직 운영 상의 사회적 책임 이행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치사슬(Value Chain) 상의 사회적 가치 이행 및 확산 (사회적 가치 창출 주체 확대)
실행주체	내부	내부	내부 / 외부
영향발생	외부	내부 / 외부	외부
특징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공공성)	민간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활동과 동일	공공기관으로서 외부 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
역할 책임	공공기관	공공기관 = 민간기업	공공기관 > 민간기업
예시	LH공사의 도시재생, 지역 공동체 복원수자원공사의 물 복지 실현 코레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	반부패 경영, 공정 운영 관행 준수 환경경영,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	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평가 협력사 선정 시 사회책임경영 평가 지역사회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지원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평가
- 예술가 개인 및 단체 지원선정시 사회책임경영 평가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및 창작 활성화 지원



필요성



지원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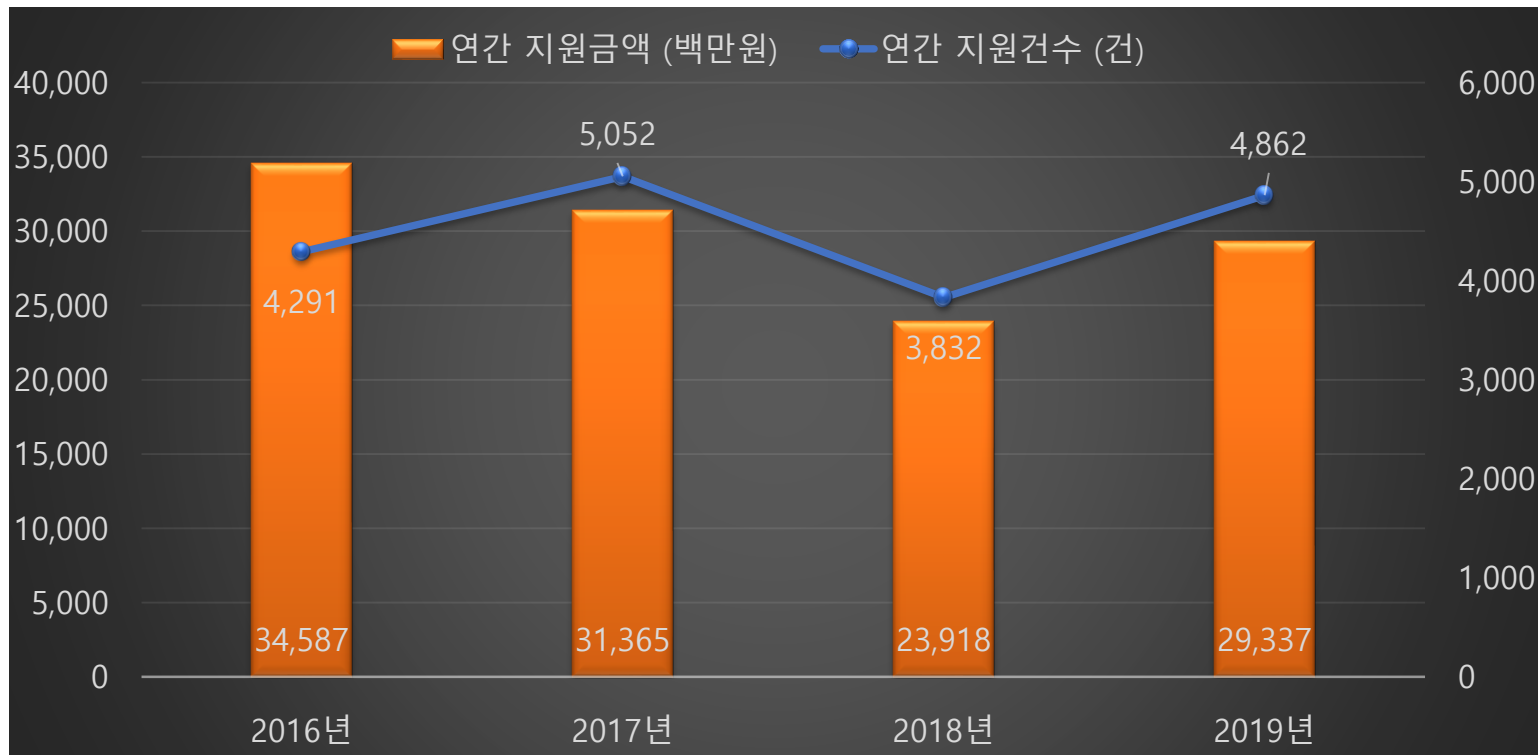


성비격차



시사점

년도별 연간 지원금액과 지원건수





필요성



지원구조



성비격차



시사점

공연예술분야 사업별 지원 규모

공연예술분야 지원신청 건수	전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18,037	4291	5052	3832	4862
	100	23.8	28.0	21.2	27.0
예술창작지원	4,356	889	1082	1051	1334
	24.2	→ 20.7	21.4	27.4	27.4 ←
국제교류지원	2,221	445	501	514	761
	12.3	10.4	9.9	13.4	13.4
예술인력육성	2,557	726	575	630	626
	14.2	16.9	11.4	16.4	12.9
문화예술향유사업지원	8,903	2231	2894	1637	2141
	49.4	52.0	57.3 ←	→ 42.7	44.0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필요성



지원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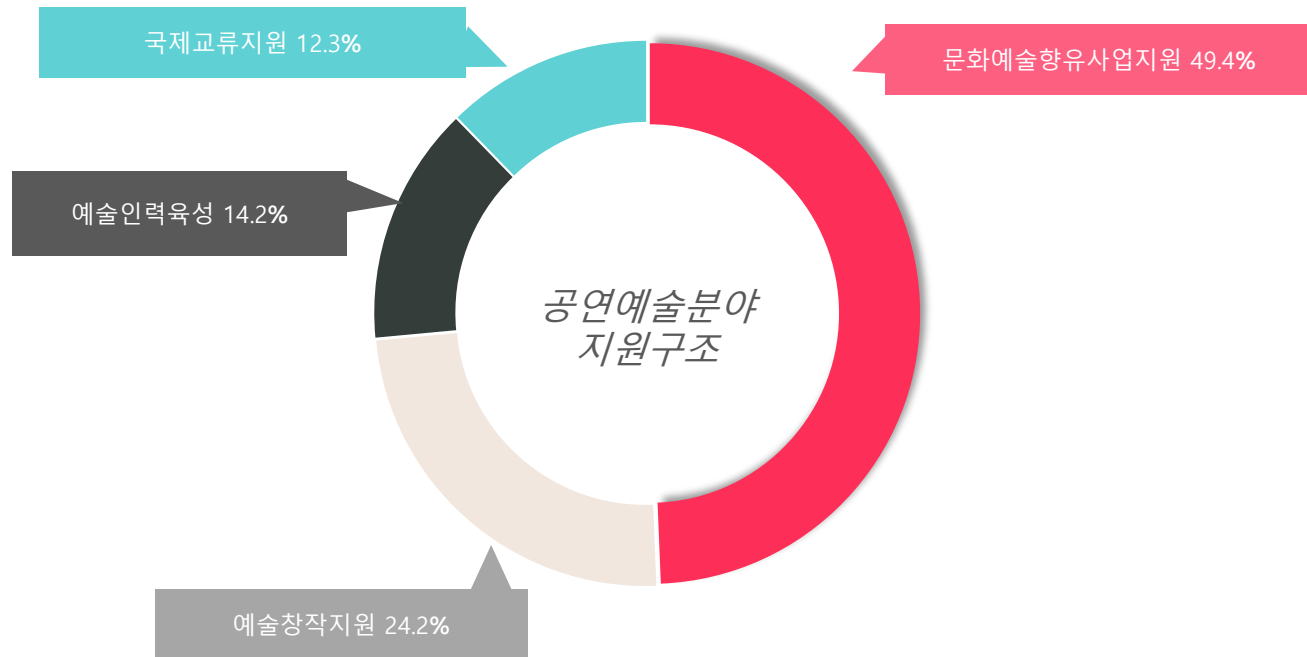


성비격차



시사점

공연예술분야 사업별 지원 규모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필요성



지원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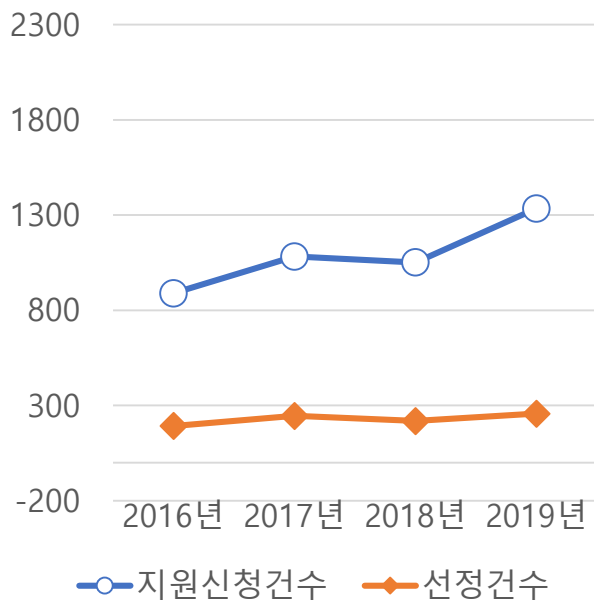
성비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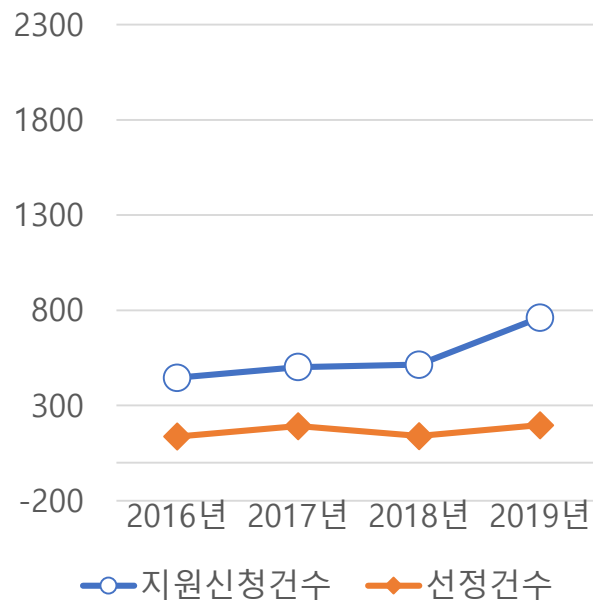
시사점

공연예술분야 사업별 지원, 선정 규모

<예술창작지원>



<국제교류지원>





필요성



지원구조



성비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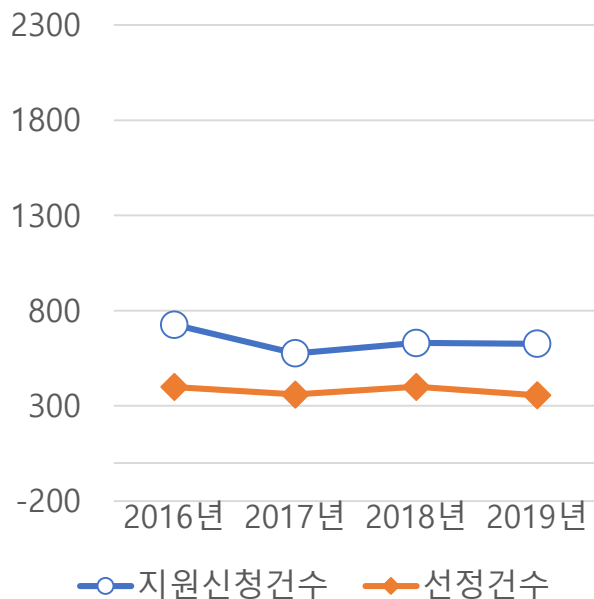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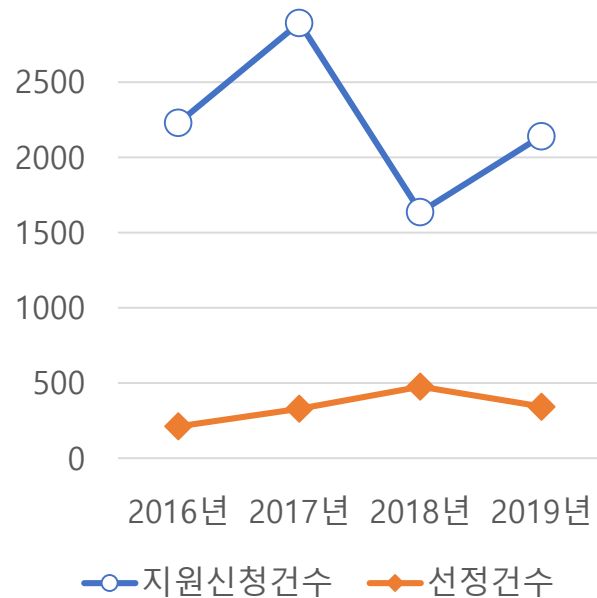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지원 건수 급감

공연예술분야 사업별 지원, 선정 규모

<예술인력양성>



<문화예술향유사업지원>





필요성



지원구조



성비격차



시사점

Contents

Contents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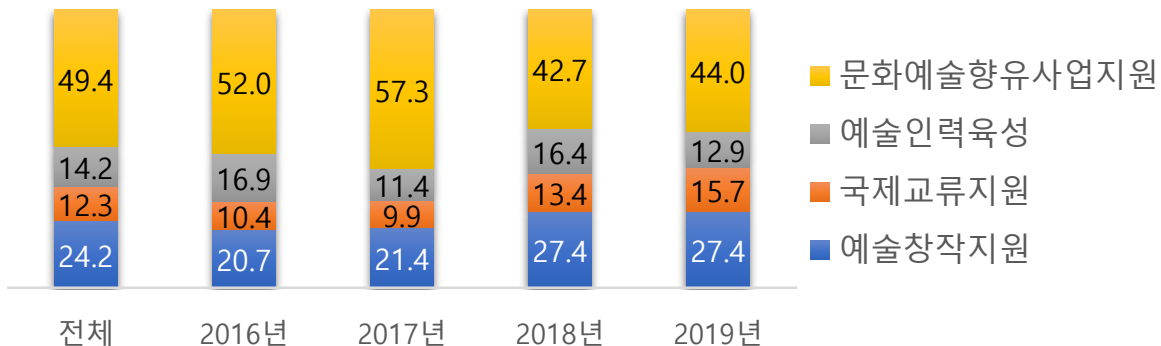
Contents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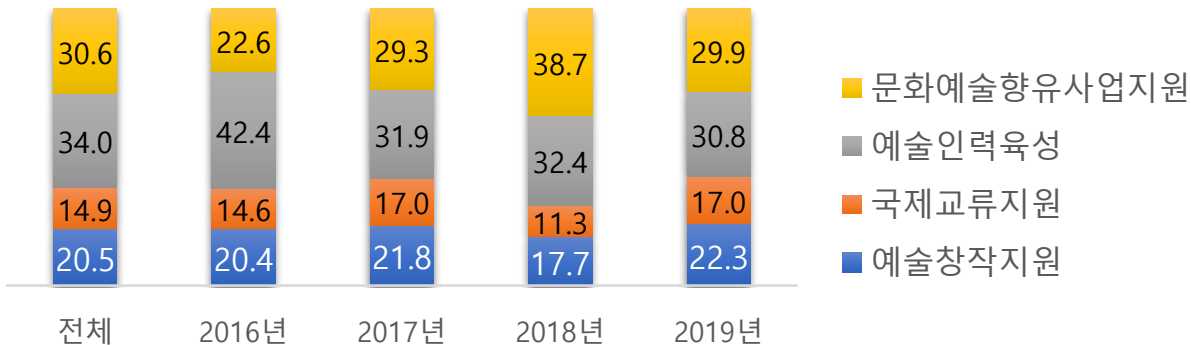
Contents

예술창작지원의 지원, 선정건수 구성비

〈지원신청 건수 기준 구성비〉



〈선정 건수 기준 구성비〉





필요성



지원구조



성비격차



시사점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예술창작지원 세부사업별 지원 건수

공연예술분야 지원신청 건수			전체 (2016~2019)	연도			
합계			18,037	2016 4,291	2017 5,052	2018 3,832	2019 4,862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137	43	27	34	33
		뮤지컬창작산실	473	132	118	103	120
		창작실험활동지원	501	0	177	140	184
		오페라창작산실	117	31	37	25	24
		창작활성화지원	112	0	0	112	0
		무용창작산실	541	116	148	137	140
		연극창작산실	1,010	235	244	257	274
		음악창작산실	212	57	29	77	49
		전통예술창작산실	372	73	91	102	106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128	0	0	64	64
국제교류지원	공연예술행사지원	공연예술행사지원	413	202	211	0	0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340	0	0	0	340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259	42	50	83	84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10	0	5	5	0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101	23	30	23	25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52	7	24	21	0
예술인력육성	현장예술인력육성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75	27	34	14	0
		국제예술교류지원	1,503	346	358	368	431
		청년예술교류역량강화	221	0	0	0	221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995	316	202	226	251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986	285	204	252	245
문화예술향유사업지원	차세대예술인력육성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576	125	169	152	130
		신나는예술여행	6,112	1,907	2,034	940	1,231
		순회처매칭형	1,527	247	375	214	691
		발굴형	77	77	0	0	0
		대규모 우수콘텐츠확산프로그램	968	0	485	483	0
		소규모 순회	219	0	0	0	219
		신나는예술여행 청년예술					



필요성



지원구조



성비격차



시사점

예술창작지원 세부사업별 선정 건수

공연예술분야 선정 건수			전체 (2016~2019)	연도			
				2016	2017	2018	2019
합계			4,452	941	1,125	1,234	1,152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79	16	20	22	21
		뮤지컬창작산실	100	28	25	22	25
		창작실험활동지원	77	0	28	26	23
		오페라창작산실	31	7	8	9	7
		창작활성화지원	24	0	0	24	0
		무용창작산실	122	29	33	30	30
		연극창작산실	118	33	32	26	27
		음악창작산실	80	19	17	22	22
		전통예술창작산실	54	9	18	14	13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48	0	0	23	25
	공연예술행사지원	공연예술행사지원	115	51	64	0	0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64	0	0	0	64
국제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145	28	29	40	48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8	0	5	3	0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32	8	6	9	9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21	1	13	7	0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25	11	12	2	0
		국제예술교류지원	388	89	126	78	95
		청년예술교류역량강화	44	0	0	0	44
예술인력육성	현장예술인력육성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741	198	179	201	163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598	150	128	163	157
	차세대예술인력육성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174	51	52	36	35
문화예술향유사업지원	신나는예술여행	순회처매칭형	890	193	210	236	251
		발굴형	111	19	13	29	50
		대규모우수콘텐츠확산프로그램	1	1	0	0	0
		소규모 순회	319	0	107	212	0
		신나는예술여행 청년예술	43	0	0	0	43

Contents



필요성



지원구조



성비격차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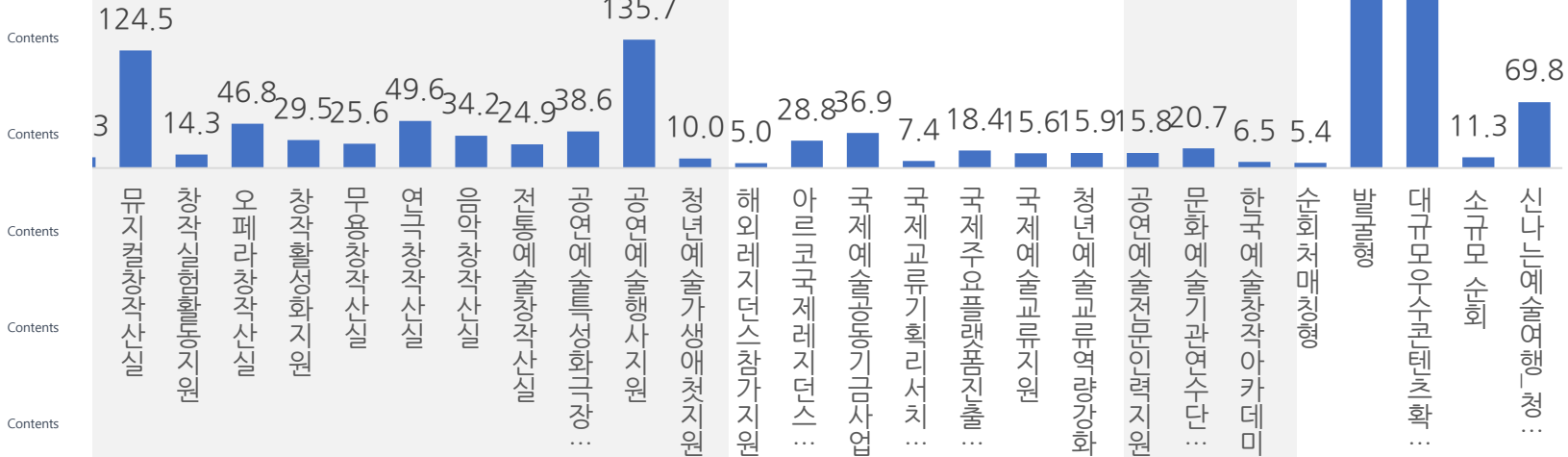
사업별 평균 지원금액(단위 : 백만원)

<예술창작지원>

<국제교류>

<인력육성>

<향유지원사업>





필요성



지원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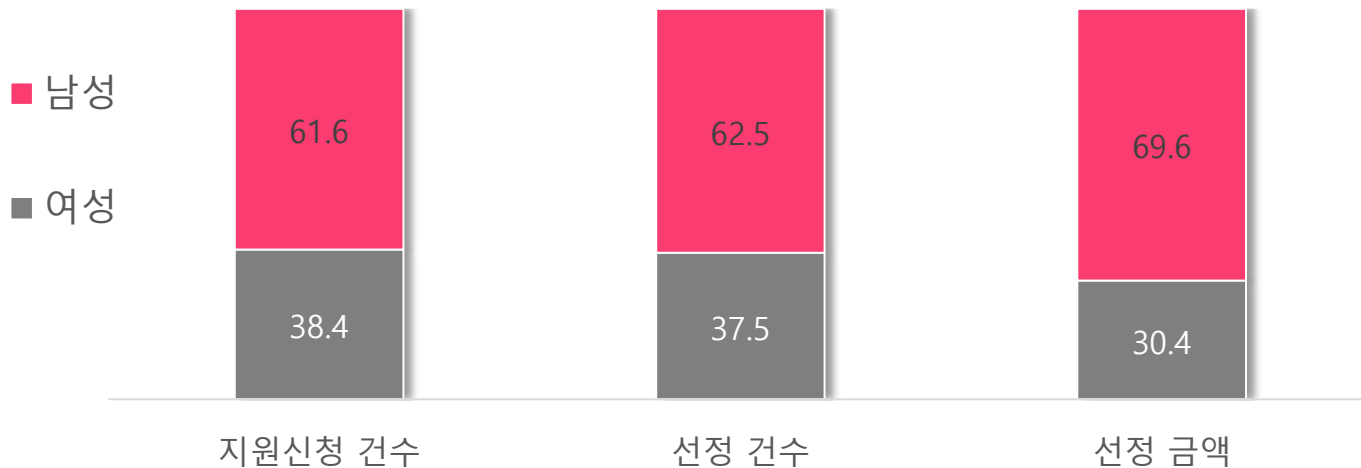
성비격차



시사점

공연예술분야 성별 구성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지원 성별 구성비% (2016~2019)





필요성



지원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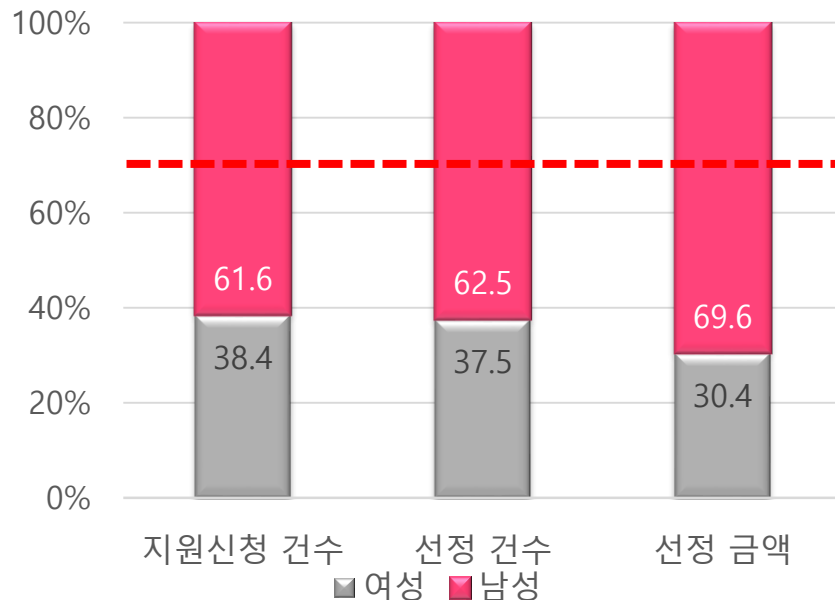
성비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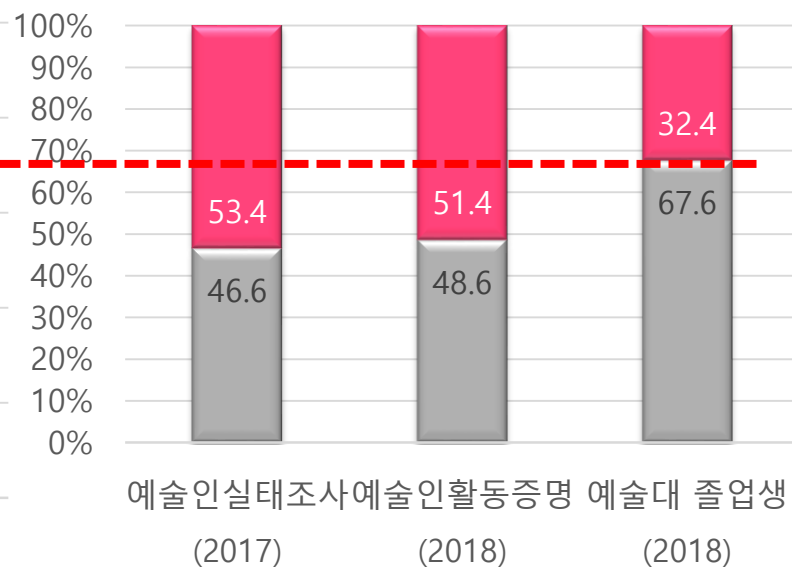
시사점

공연예술분야 성별 구성비 그리고 공연예술 지원 성별 구성비

아르코 공연예술 지원 성별 구성비%
(2016~2019)



공연예술분야 성별 구성비 비교



예술인실태조사 예술인활동증명 예술대 졸업생



필요성



지원구조



성비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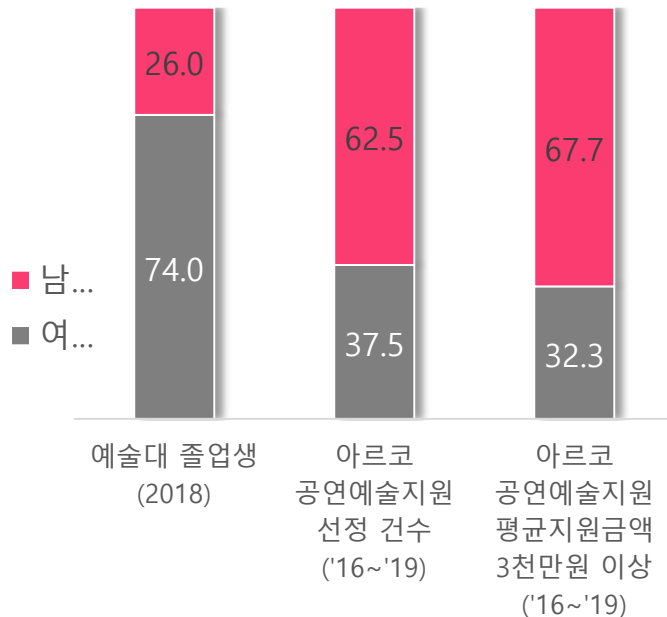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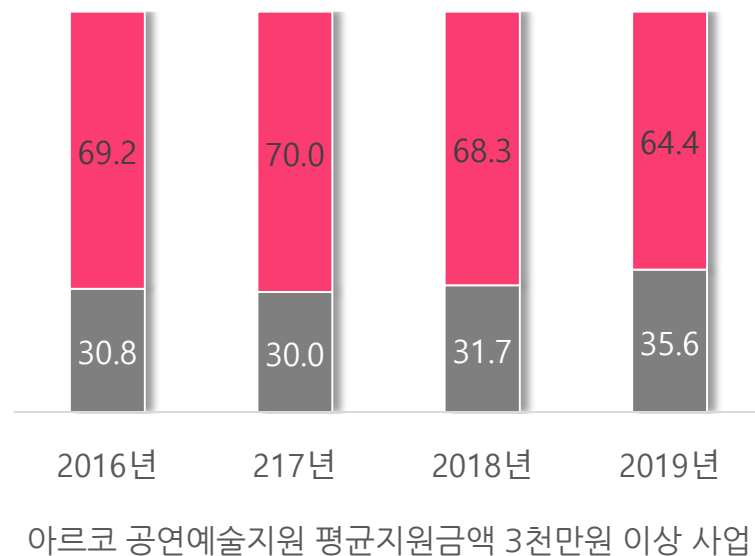
평균 지원금액이 높은 사업에서 남성의 비중이 소폭 상승

공연예술분야 성별 구성비

공연예술 성별 구성비%



평균지원금액 2천만원이상 사업
성별 구성비 %



아르코 공연예술지원 평균지원금액 3천만원 이상 사업



필요성



지원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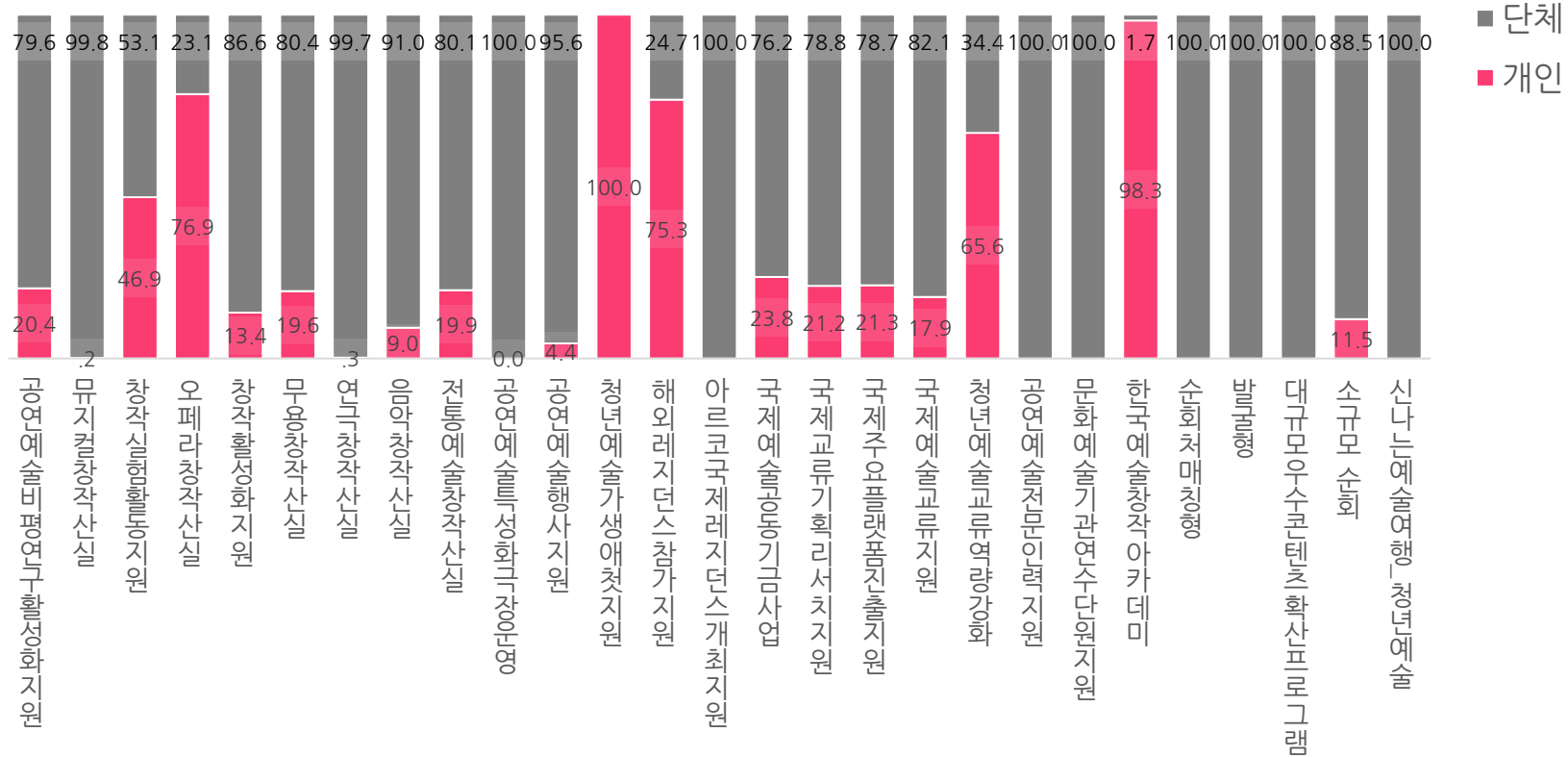


성비격차



시사점

공연예술지원 성별 구성비 개인 vs. 단체별





필요성



지원구조



성비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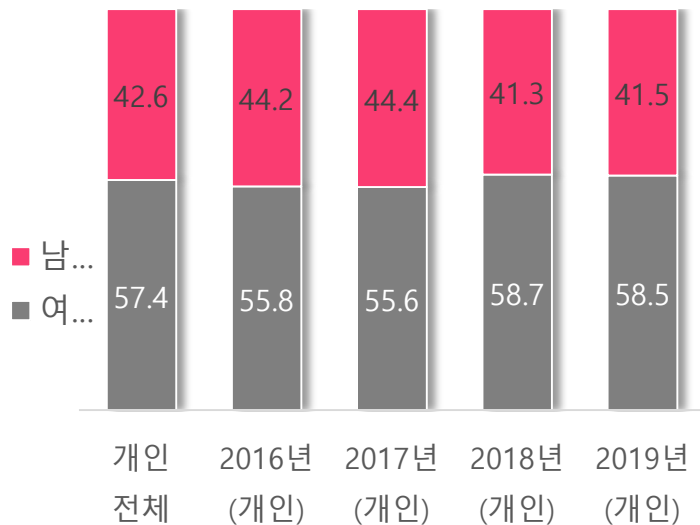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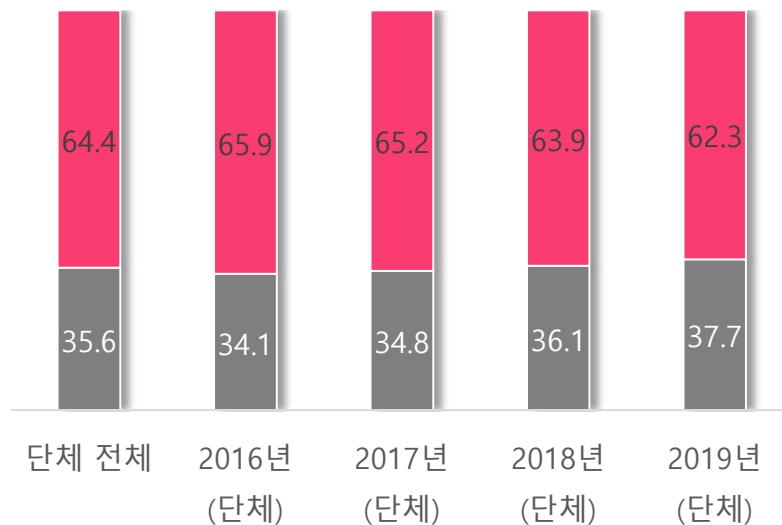
개인에서 여성의 비율에 비해 단체에서의 비율이 낮은 편

공연예술지원 성별 구성비 개인 vs. 단체별

개인 예술가 성별 구성비%



단체 성별 구성비%





필요성



지원구조



성비격차



시사점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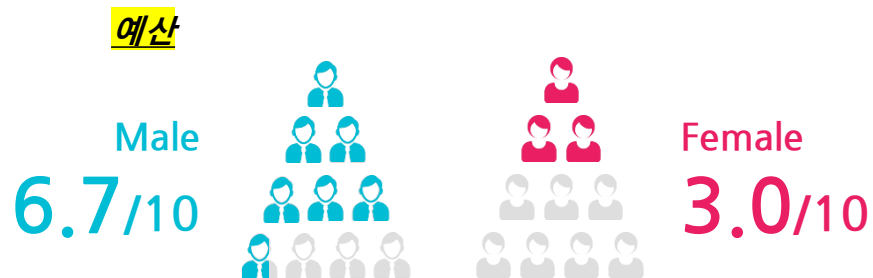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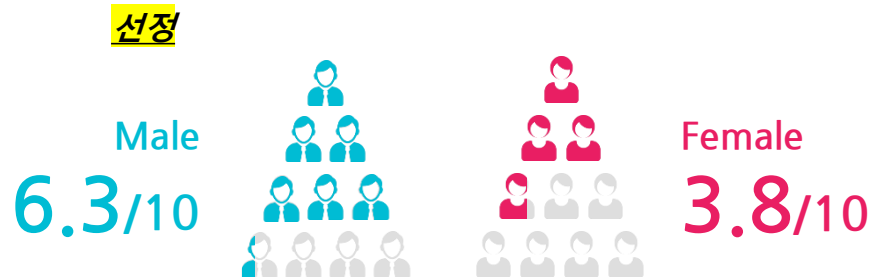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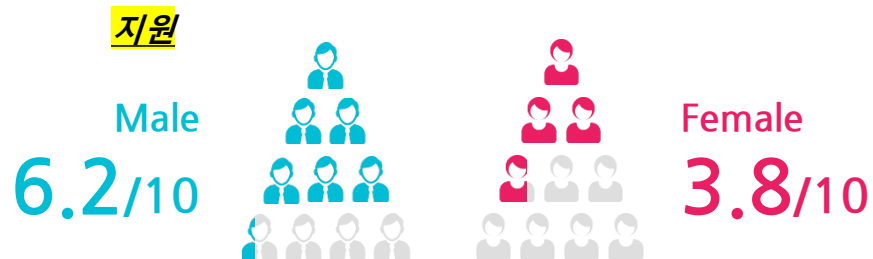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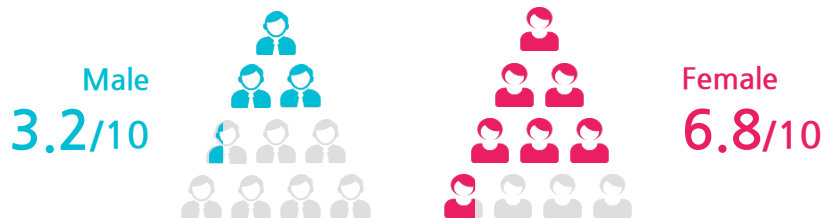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필요성



지원구조



성비격차



시사점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졸업과 예술활동의 경로

1. 현장조사
2.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경력단절

1. 보육과 돌봄에 대한 안전망
2. 임신,육아,출산에 대한 인정

지원시스템 검토

1. 사업구조의 안정화
2. 심사위원의 성비

여성의 대표성 확보

1. 여성공연단체에 대한 우대
2. 균형을 위한 기계적 조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 시각분야 성평등 팩트체크

장 현 선

((주)장앤파트너스그룹 대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였는가?



아르코 예술지원 시각분야 성평등 팩트체크

(주)장애파트너스그룹
장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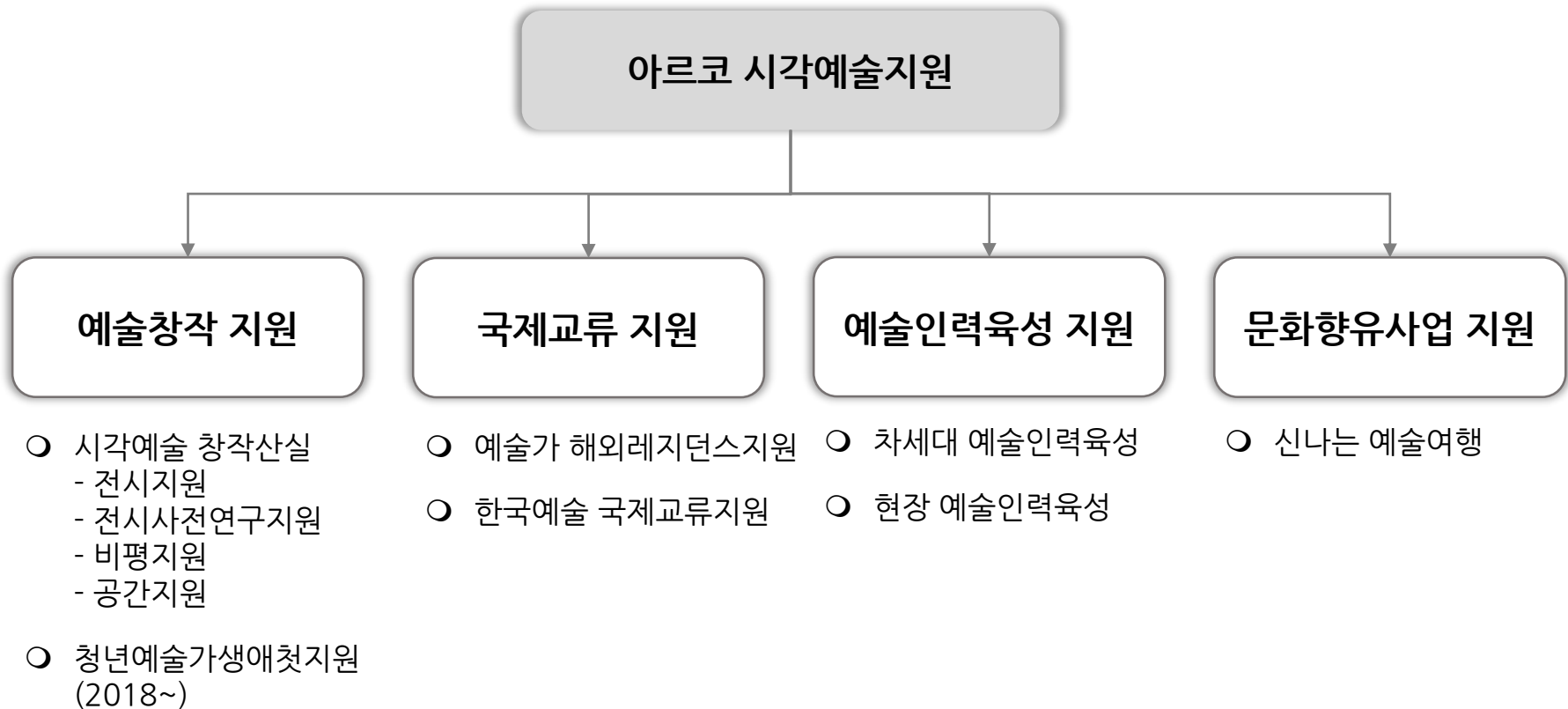
발표 순서

아르코시각예술지원에 대한 이해

아르코 시각예술지원의 연도별 변화

아르코 시각예술지원의 성평등 팩트체크

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지원인 예술창작(국제교류), 예술인력육성, 문화향유사업 지원에 대해 분석



※제외사업 : [예술창작지원] 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 남북문화 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지원] 해외문화기관협력,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 운영,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 지원
 [인력육성] 사립미술관전문인력지원

공간/전시지원, 해외레지던스/국제예술교류지원, 연수단원지원의 비중 높음

2016년 1월 ~ 2019년 7월 문예진흥기금 아르코 시각예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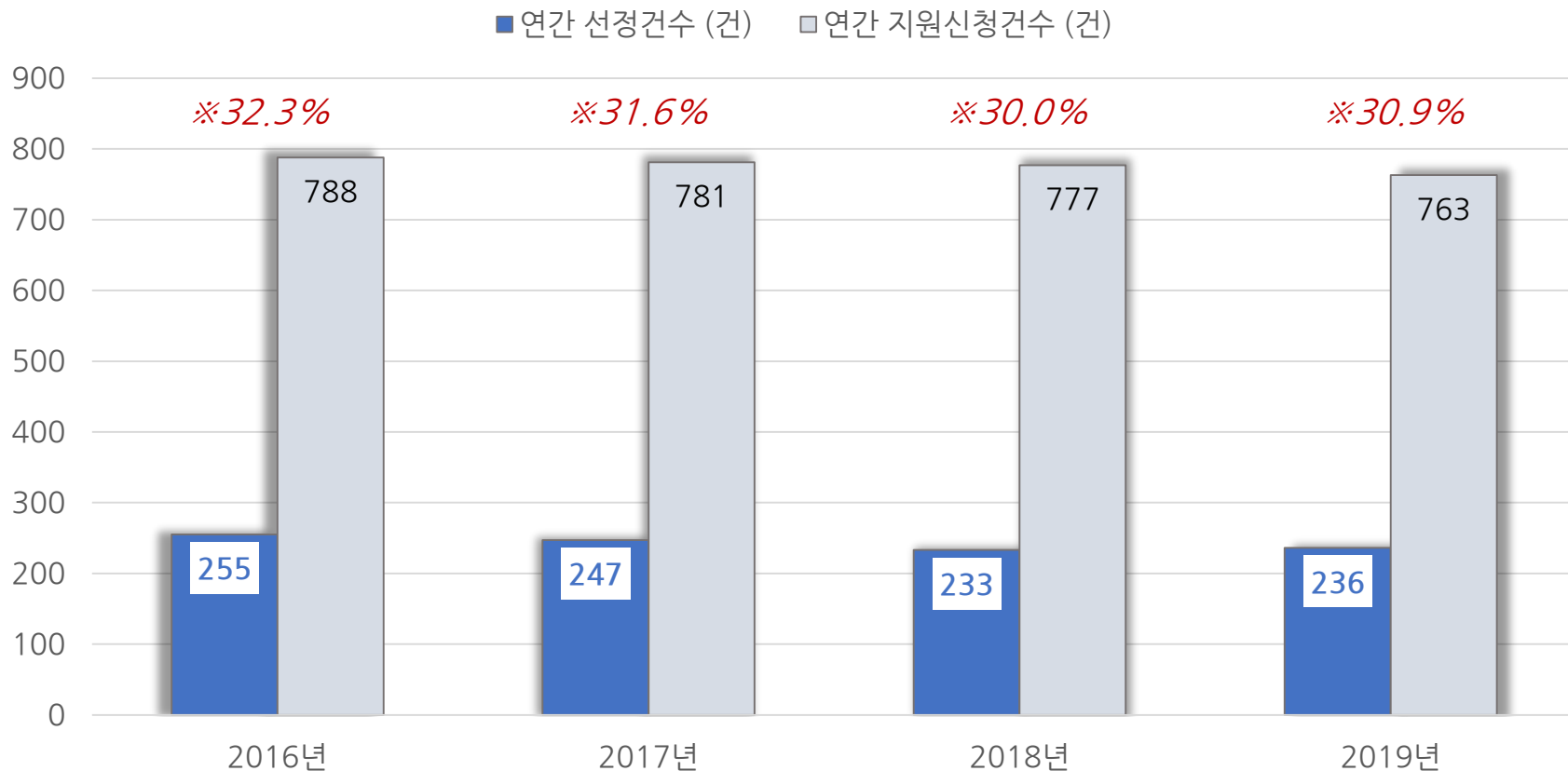
사업 구분			지원신청 건(건)	선정 건수(건)	지원금액(백만원)
예술 창작지원	시각예술 창작산실	(1) 공간지원	227	117	3,838
		(2) 비평연구지원	124	50	401
		(3) 전시지원	241	57	2,394
		(4) 전시사전연구지원	45	18	90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5)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170	35	266
국제 교류지원	예술가 해외레지던스지원	(6)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554	194	1,044
		(7)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12	5	99
	한국예술 국제교류지원	(8)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72	18	616
		(9)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34	9	123
		(10)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13	9	146
		(11) 국제예술교류지원	659	156	2,222
예술인력 육성	차세대예술인력육성	(12)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560	51	176
	현장예술인력육성	(13)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319	227	3,594
문화예술향유사업지원		(14) 신나는 예술여행	78	25	143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건당 평균지원금액이 상이 전시지원, 공간지원,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의 건당 비용 높은 편

사업 구분			건당 평균 지원결정액	
			개인	단체
예술 창작지원	시각예술 창작산실	(1) 공간지원		3,300만원
		(2) 비평연구지원	764만원	850만원
		(3) 전시지원	4,393만원	3,605만원
		(4) 전시사전연구지원	500만원	500만원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5)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760만원	
국제 교류지원	예술가 해외레지던스지원	(6)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537만원	
		(7)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1,980만원
	한국예술 국제교류지원	(8)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1,713만원	4,714만원
		(9)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1,633만원	833만원
		(10)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1,575만원	2,000만원
		(11) 국제예술교류지원	1,336만원	1,577만원
예술인력 육성	차세대예술인력육성	(12)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344만원	
	현장예술인력육성	(13)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1,583만원
문화예술 향유사업지원	신나는예술여행	(14) 신나는 예술여행		571만원

시각예술 지원신청건수는 2016년 이후 소폭 감소세 연도별 선정율은 약 30%로 큰 변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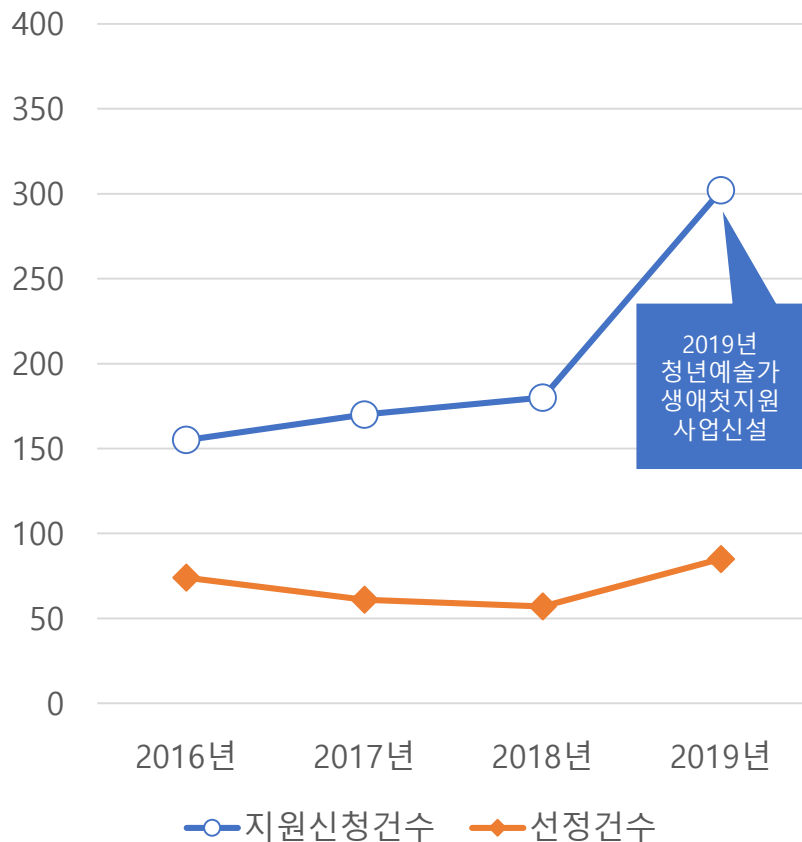
〈연도별 아르코 시각예술지원 금액/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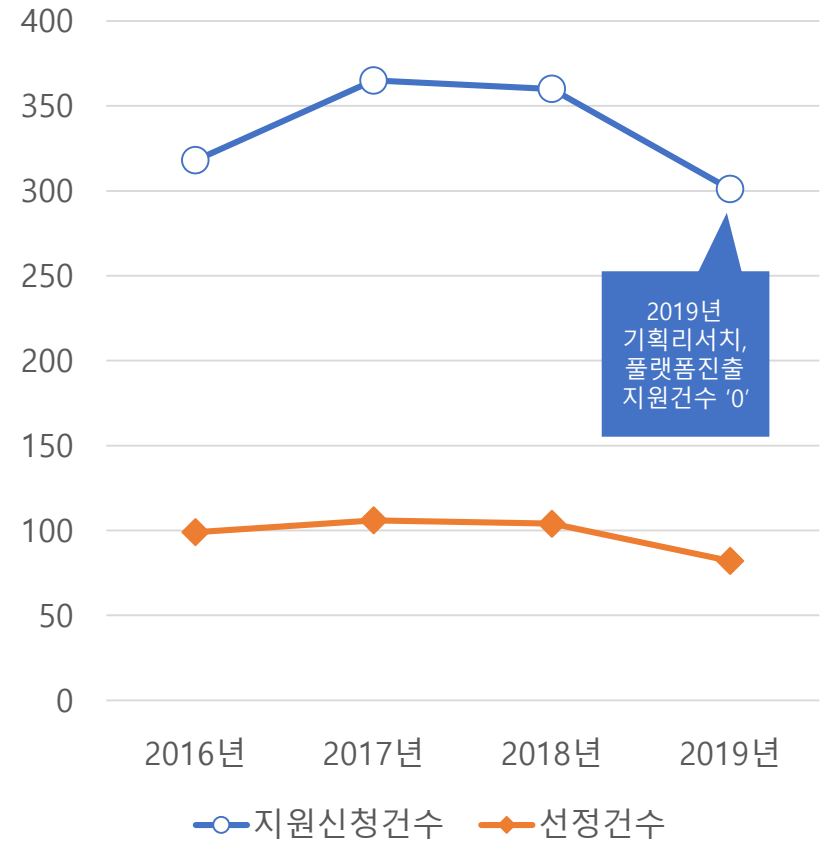
※지원건수 대비 선정건수 비율

2019년 청년예술지원 신설로 예술창작 지원건수 상승 2019년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감소로 지원/선정 건수 감소

<예술창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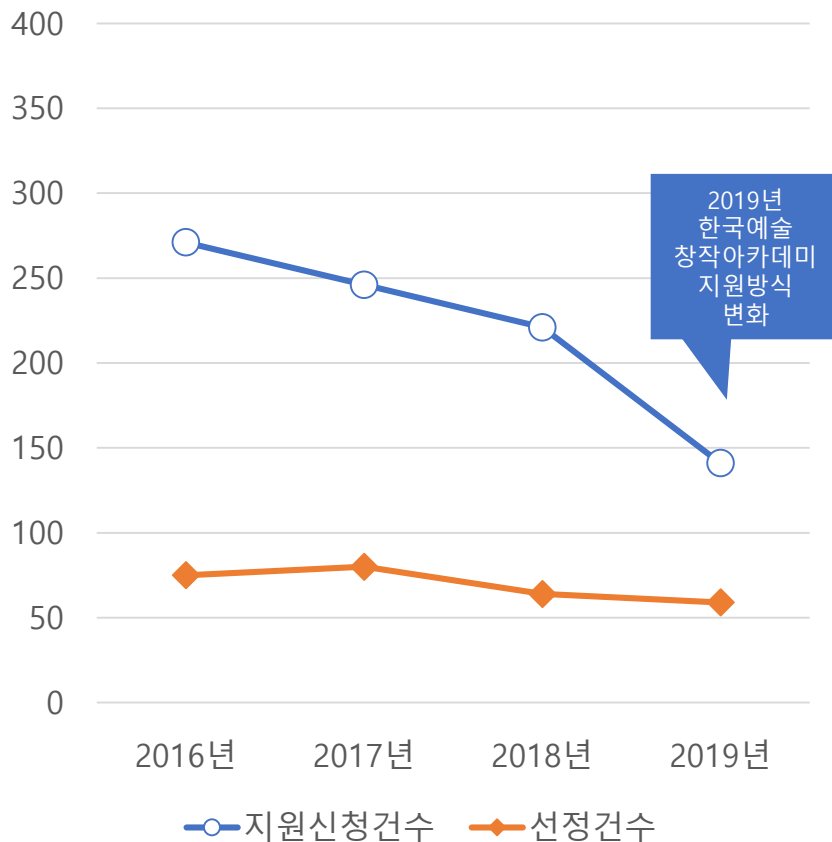


<국제교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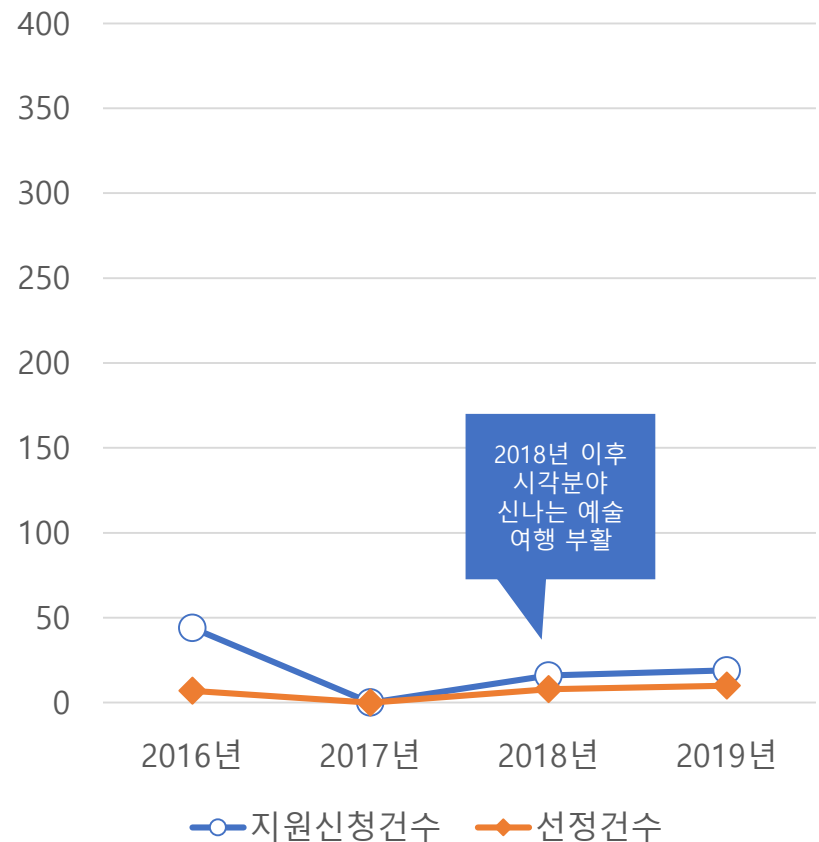


인력육성지원 중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지원 방식 변화로 신청건수 감소 신나는 예술여행의 지원/선정 건수 전체 시각예술지원에서 미미

<인력육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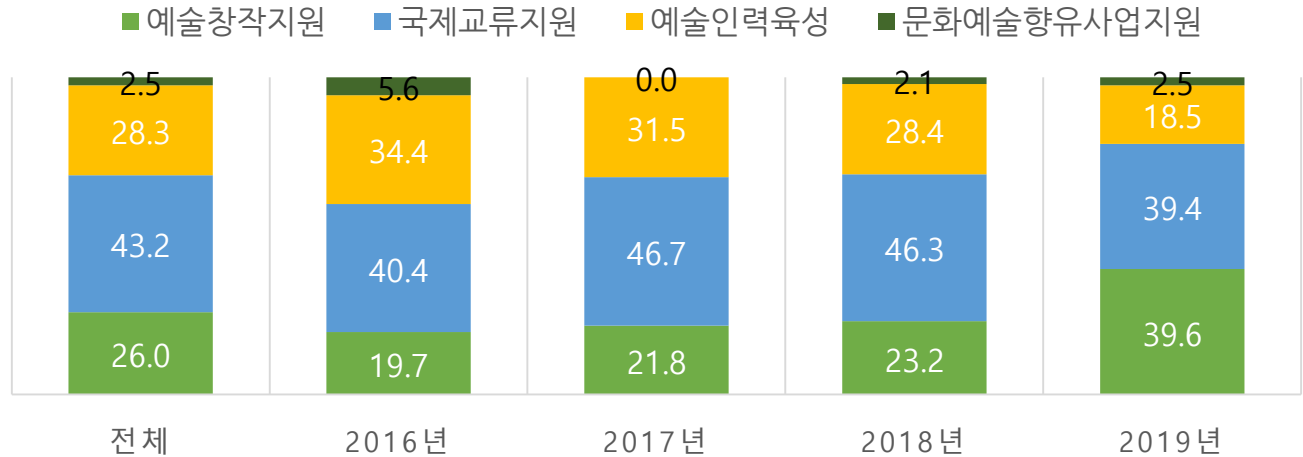


<문화향유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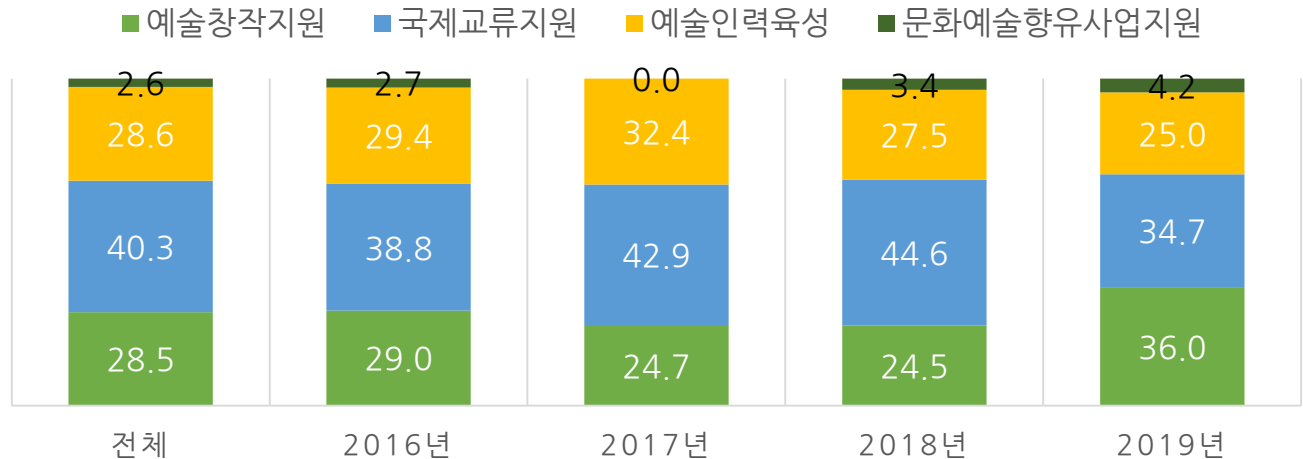


청년예술지원의 2019년 신설로 인해 예술창작지원의 지원신청 및 선정건수가 2019년 급격히 증가

지원신청 건수 기준
구성비 %



선정 건수 기준
구성비 %



Where are we?

아르코 시각예술지원

```
graph TD; A[아르코 시각예술지원] --> B[예술창작 지원]; A --> C[국제교류 지원]; A --> D[예술인력육성 지원]; A --> E[문화향유사업 지원]; B --> B1[○ 시각예술 창작산실]; B1 --> B1_1[- 전시지원]; B1 --> B1_2[- 전시사전연구지원]; B1 --> B1_3[- 비평지원]; B1 --> B1_4[- 공간지원]; B --> B2[○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2018~)]; C --> C1[○ 예술가 해외레지던스지원]; C --> C2[○ 한국예술 국제교류지원]; D --> D1[○ 차세대 예술인력육성]; D --> D2[○ 현장 예술인력육성]; E --> E1[○ 신나는 예술여행];
```

예술창작 지원

- 시각예술 창작산실
 - 전시지원
 - 전시사전연구지원
 - 비평지원
 - 공간지원
-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2018~)

국제교류 지원

- 예술가 해외레지던스지원
- 한국예술 국제교류지원

예술인력육성 지원

- 차세대 예술인력육성
- 현장 예술인력육성

문화향유사업 지원

- 신나는 예술여행

개인 예술가는 예술가에게 직접적 지원을 의미, 단체는 프로젝트 팀 외에도 공간/시설의 운영을 포함

사업 구분			개인	단체
예술 창작지원	시각예술 창작산실	(1) 공간지원		■
		(2) 비평연구지원	■	■
		(3) 전시지원	■	■
		(4) 전시사전연구지원	■	■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5)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	
국제 교류지원	예술가 해외레지던스지원	(6)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	
		(7)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
	한국예술 국제교류지원	(8)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	■
		(9)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	■
		(10)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	■
		(11) 국제예술교류지원	■	
예술인력 육성	차세대예술인력육성	(12)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현장예술인력육성	(13)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
문화예술 향유사업지원	신나는예술여행	(14) 신나는 예술여행		■

※ 2018년 이후 중단 사업 : 국제교류기획리서치 지원, 국제주요플랫폼진출 지원
2019년 신설 사업 :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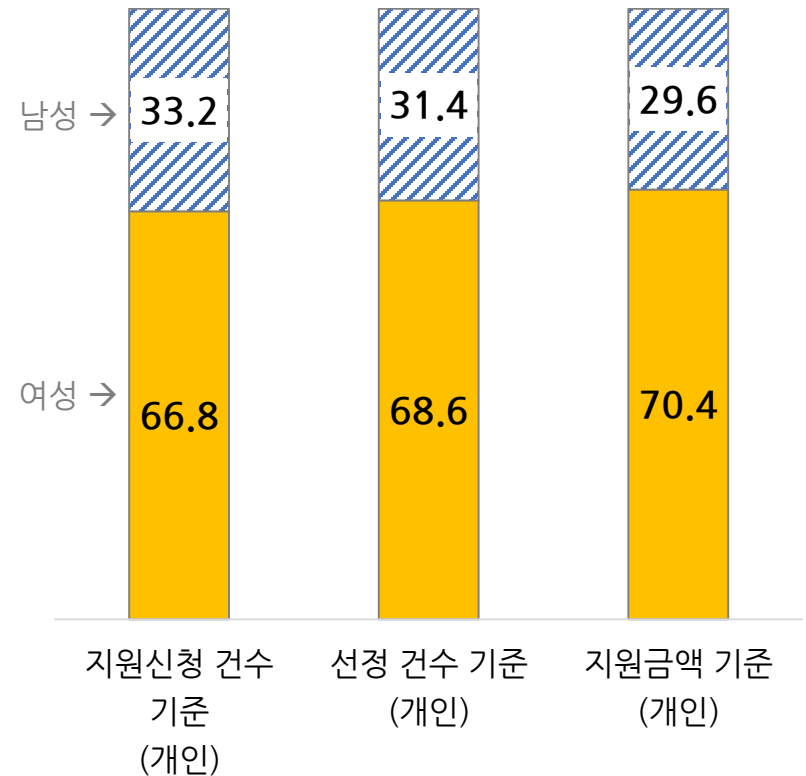
지난 4년간 아르코 개인 예술지원의 성비는 여성 69 : 남성 31 →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성비를 차지 : 성평등하다고 볼 수 있나?

시각예술 전체

〈아르코 시각예술지원(개인) 사업〉

사업 구분		
예술창작 지원	시각예술창작산실	(2) 비평연구지원
		(3) 전시지원
		(4) 전시사전연구지원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5)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국제 교류지원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6)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한국예술 국제교류지원	(8)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9)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10)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11) 국제예술교류지원
예술인력 육성	차세대예술인력육성	(12)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아르코 시각예술지원(개인) 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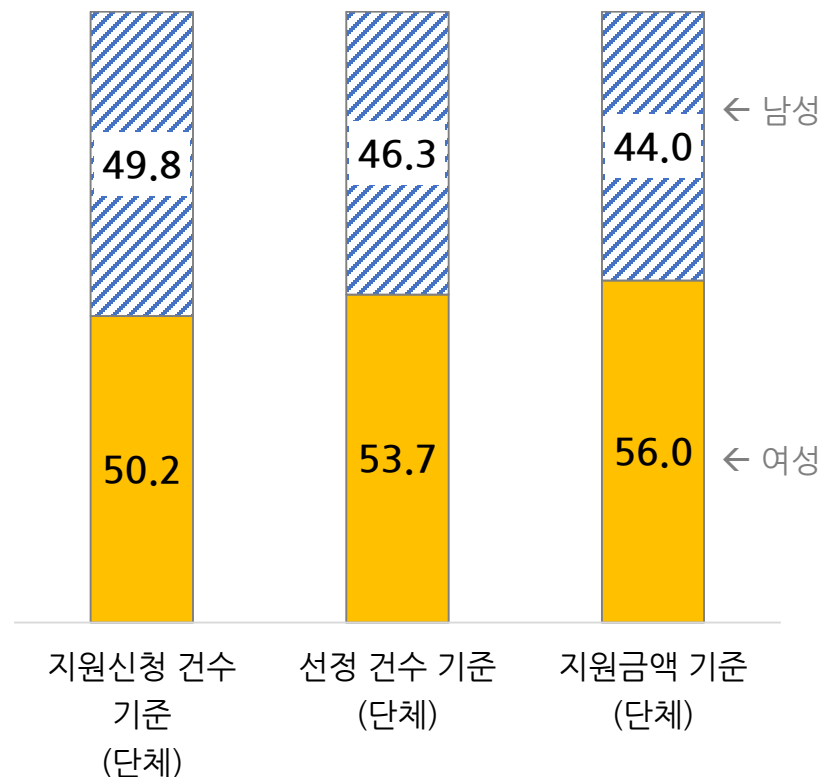
지난 4년간 아르코 시각예술 단체지원의 성비는 여성 54 : 남성 46 → 여성대표 비율이 남성보다 소폭 높음 : 성평등하다고 볼 수 있나?

시각예술 전체

〈아르코 시각예술지원(단체) 사업〉

사업 구분		
예술 창작지원	시각예술 창작산실	(1) 공간지원
		(2) 비평연구지원
		(3) 전시지원
		(4) 전시사전연구지원
국제교류 지원	예술가 해외레지던스지원	(7)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한국예술 국제교류지원	(8)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9)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10)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예술인력 육성	현장예술인력육성	(13)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문화예술 향유사업지원	신나는예술여행	(14) 신나는 예술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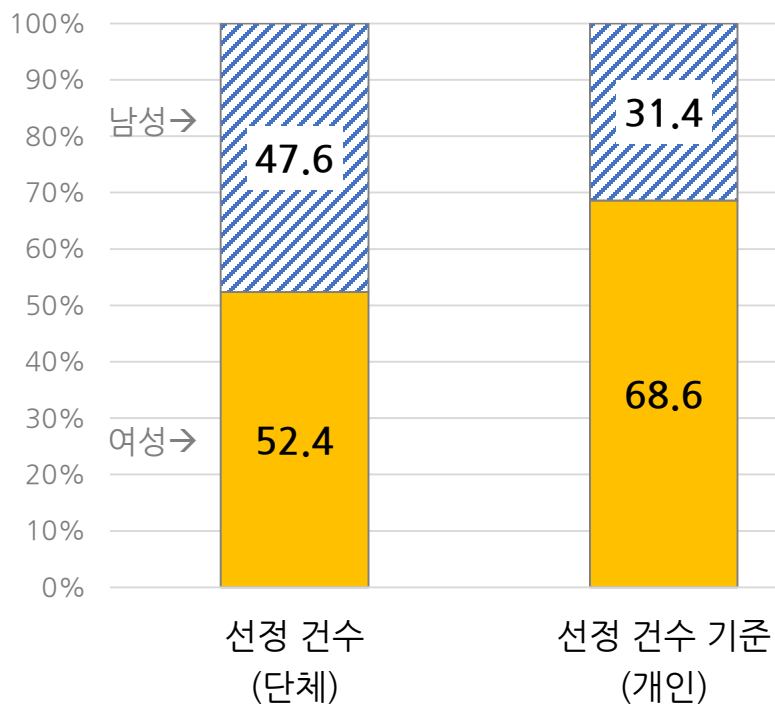
〈아르코 시각예술지원(단체) 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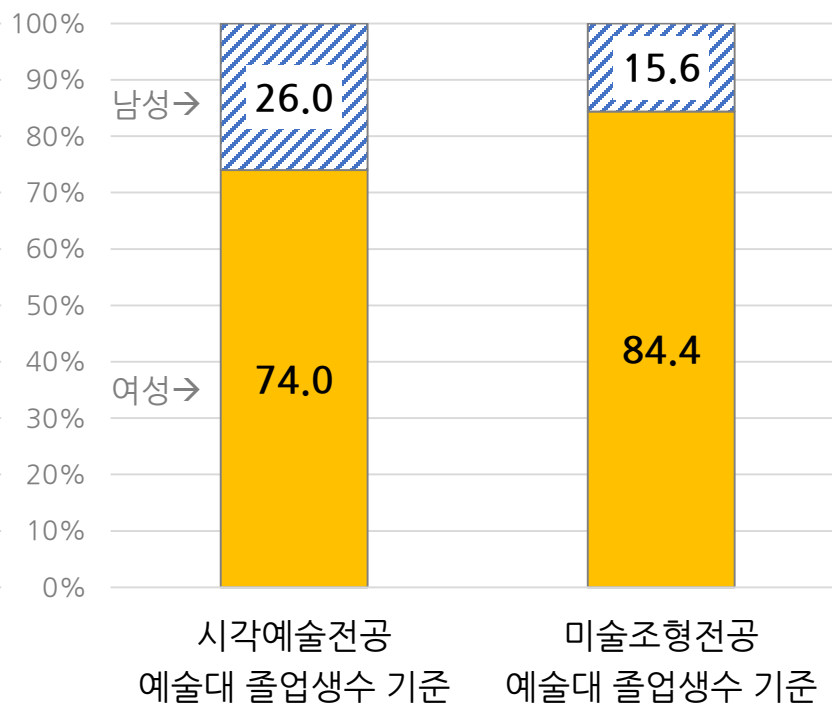
시각예술지원을 받는 여성예술가가 남성보다 많지만, 실제 균형과 맞지 않음 미술/조형 전공자의 성비로 보면 최대 30%p차이까지 벌어짐

시각예술 전체

〈아르코 시각예술지원, 2016~2019〉



〈고등교육통계 졸업생,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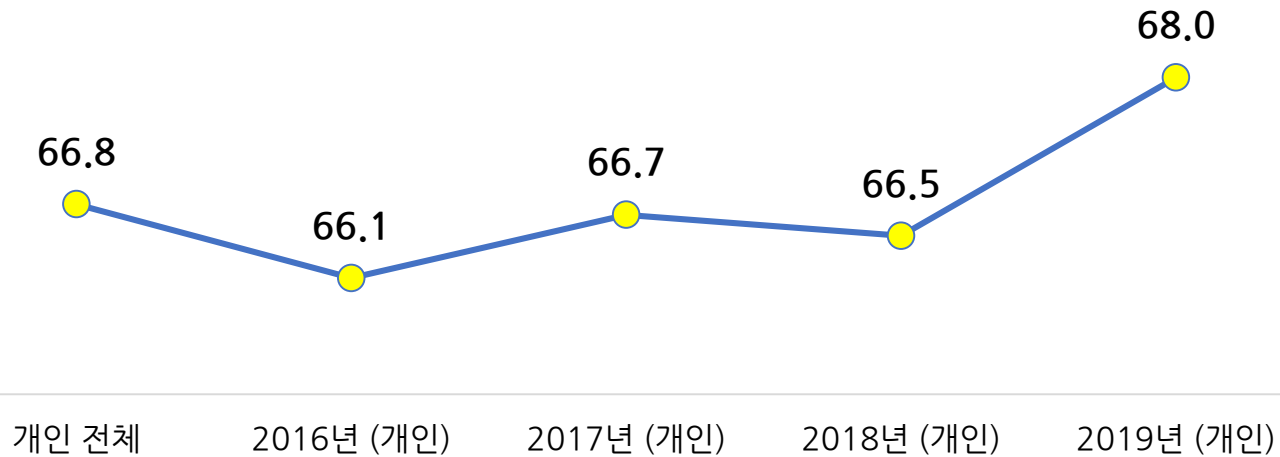


※고등교육통계, 시각분야 졸업생 성비 (2018)		남성	여성
디자인	디자인일반,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기타디자인	29.6%	70.4%
응용예술	사진, 만화, 영상예술, 뷰티아트	24.0%	76.0%
미술조형	순수미술, 응용미술, 조형	15.6%	8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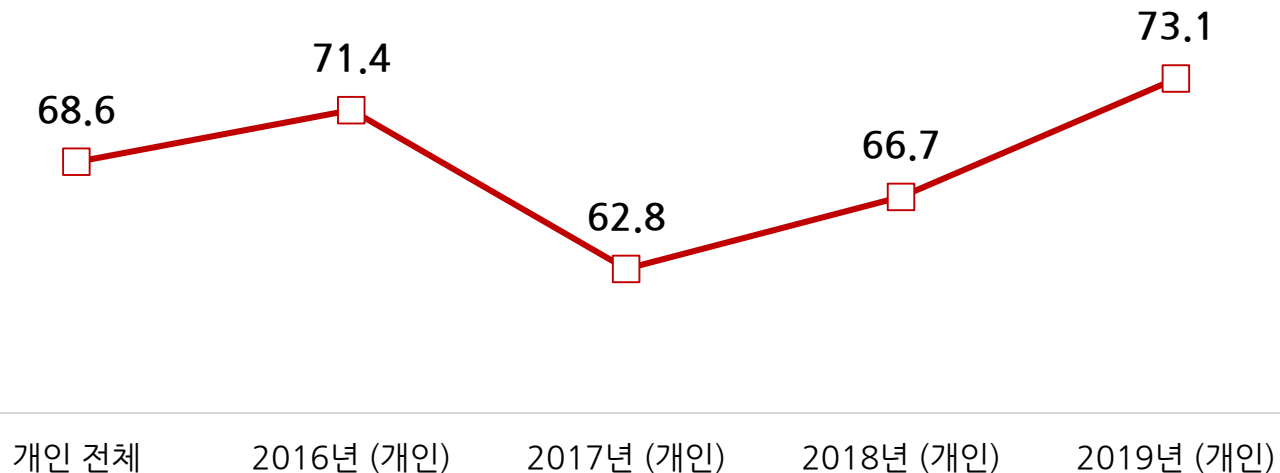
2016년 이후 시각분야 개인 예술가의 지원신청/선정 건수 기준 여성 비율 지속 상승 중

시각예술 전체

〔 지원신청 건수 기준
여성 비율 %
- 개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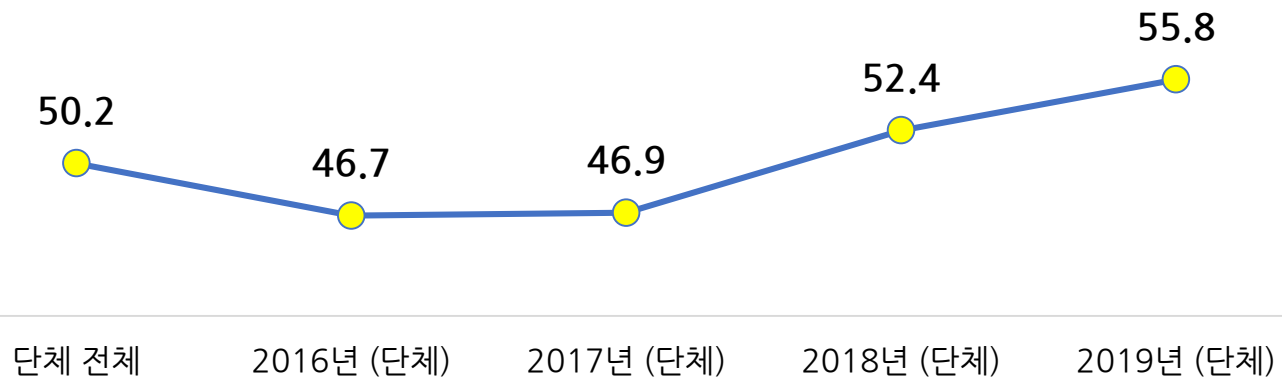
〔 선정 건수 기준
여성 비율 %
- 개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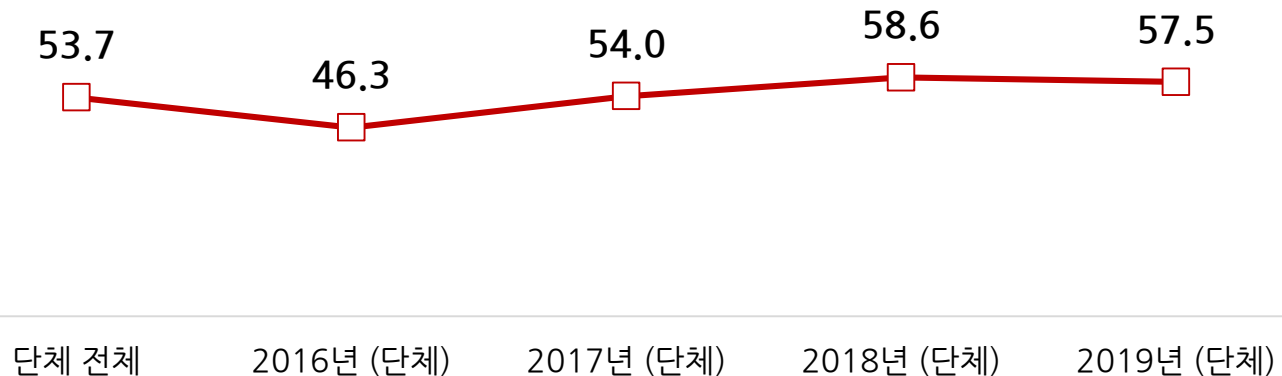
2016년 이후 시각분야 예술단체 여성 대표의 지원/선정비율은 상승세이나, 여전히 개인보다 여성대표인 단체의 비율은 낮은 편

시각예술 전체

〔 지원신청 건수 기준
여성 비율 %
- 단체 - 〕



〔 선정 건수 기준
여성 비율 %
- 단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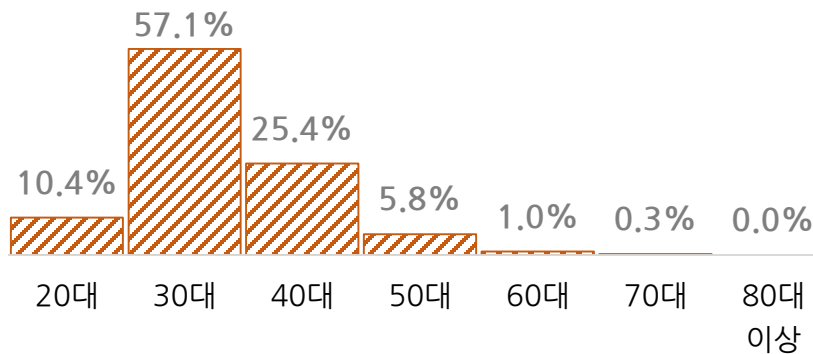


남녀 모두 주로 30-40대가 개인자격으로 아르코 시각예술지원에 신청/선정 단, 여성에 비해 남성 개인예술가의 연령범위가 더 넓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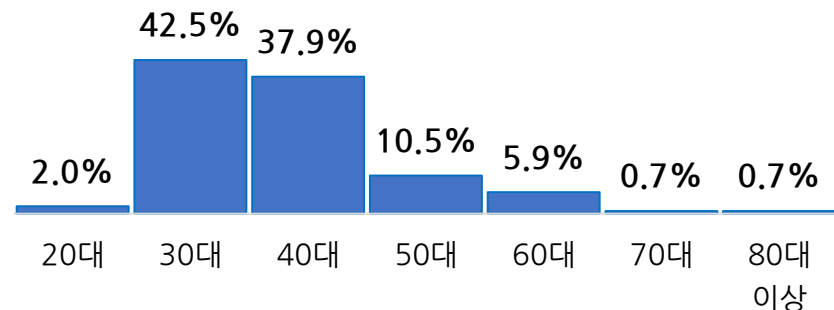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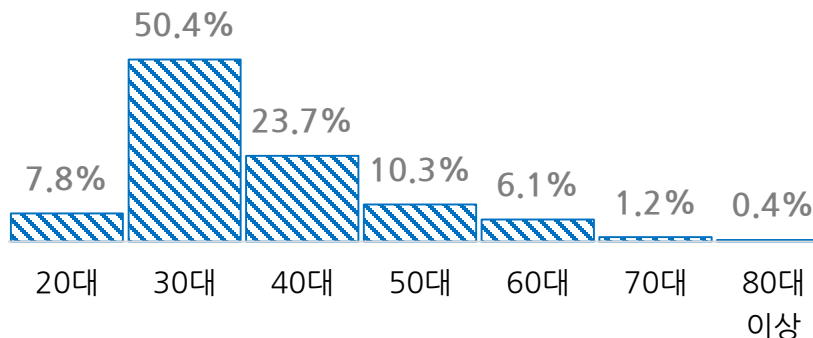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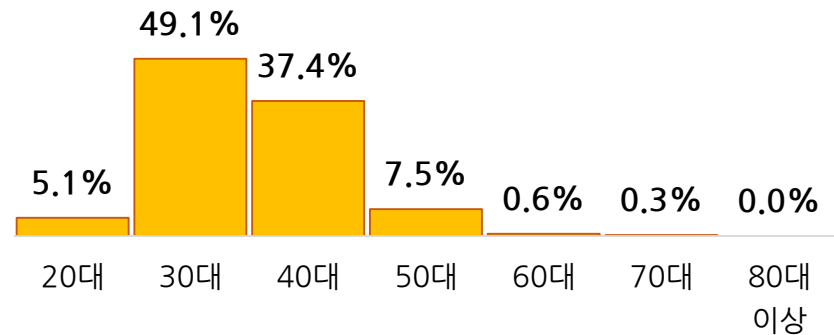
시각예술 전체

〈시각예술 전체〉

지원신청 건 수 기준 연령대별 구성비
- 개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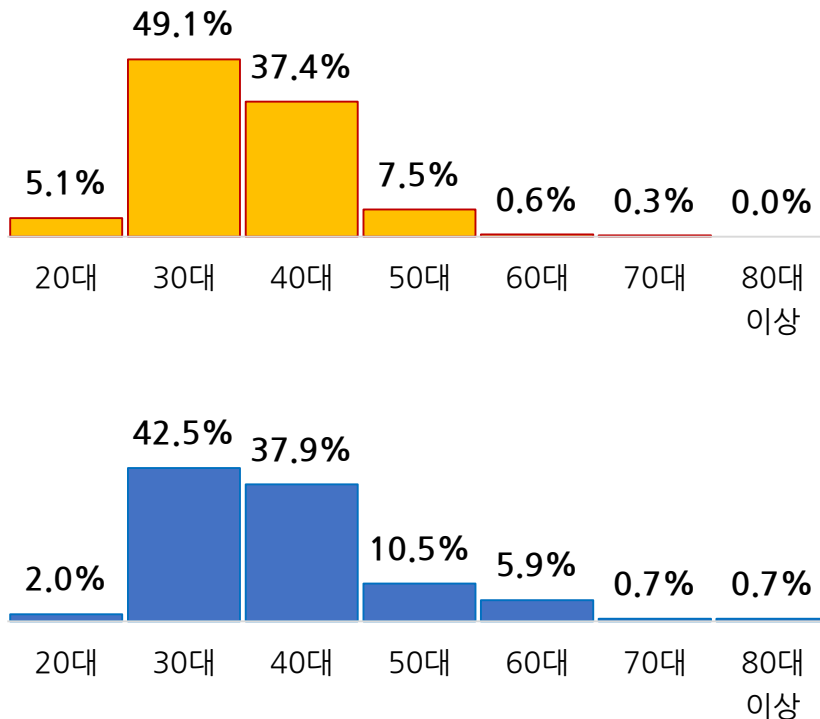
선정 건 수 기준 연령대별 구성비
- 개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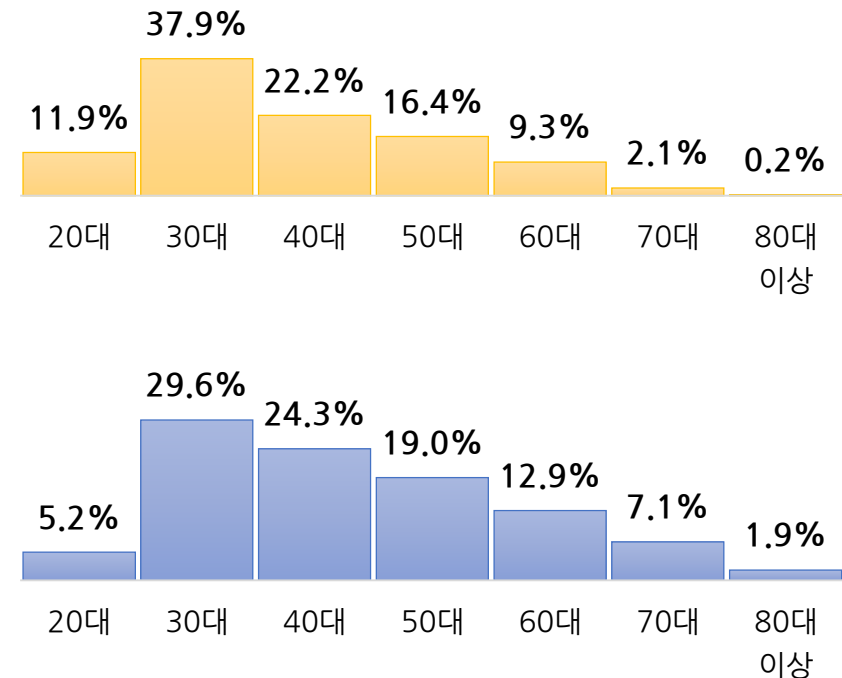
30-40대 개인예술가 중심의 아르코 시각예술지원 예술인활동증명 발급 연령대에 비해 30-40대 집중된 지원신청/선정

시각예술 전체

선정 건 수 기준 연령대별 구성비
- 개인 -



예술인활동증명 시각분야 예술가 연령대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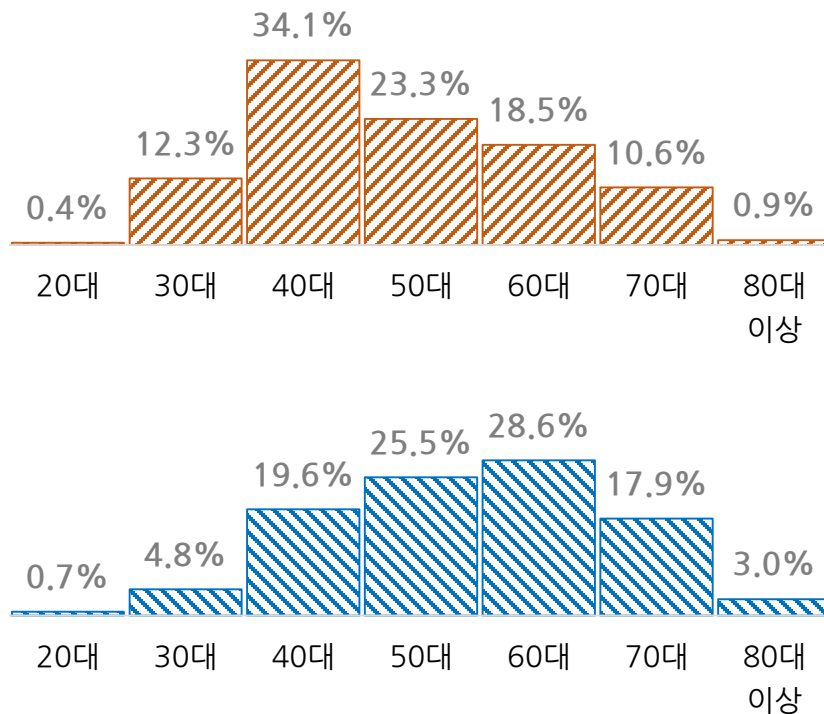


**여성대표 단체 중 20~30대 젊은 대표가 있는 단체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대표가 있는 단체는 40대~70대까지 고르게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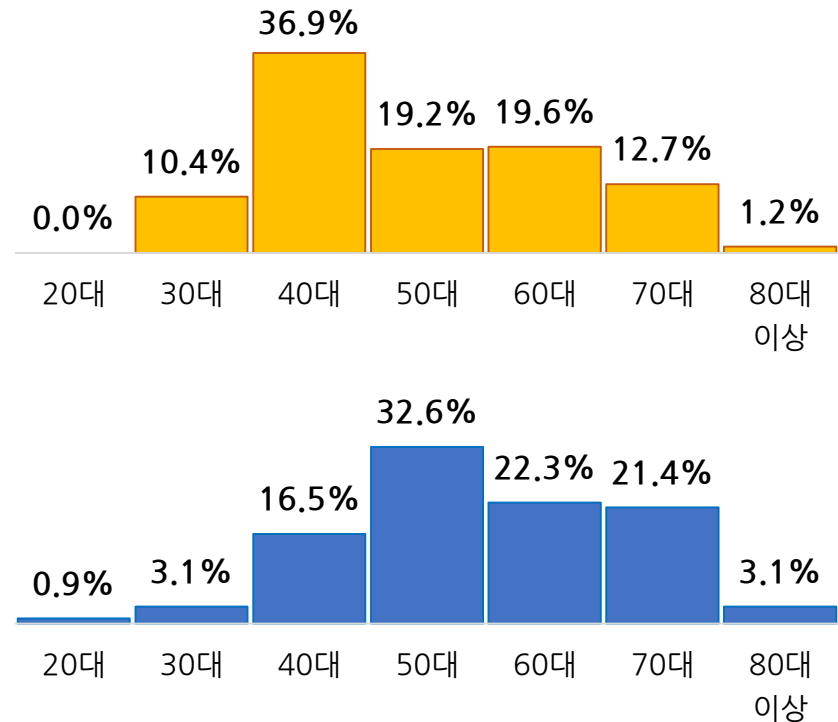
시각예술 전체

〈시각예술 전체〉

지원신청 건 수 기준 연령대별 구성비
- 단체 -



선정 건 수 기준 연령대별 구성비
- 단체 -



단체의 경우 성격에 따라 대표의 연령대가 다양하게 분포

시각예술 전체

〈2016~2019년 아르코 시각예술지원 신청 단체 및 대표자 연령대〉

구분	남성								여성								총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합계	
갤러리			1			7		8		14	8	4		1		27	35
대안공간			1	16	30	8	8	63		7	43	14	3			67	130
미술관/박물관	3		4	31	48	33	13	132			18	55	55	41	4	173	305
비평/연구		1		10		1		12		2	9	11	15	7		44	56
재단				16	26	26		68			6	7		4		17	85
독립단체/법인/회사		23	69	21	27	3	1	144	2	44	94	24	21		5	190	334
협회	1	1	14	30	33	21	2	102			8	12		7	1	28	130
협동조합			2			5	6	13									13
총합계	4	26	106	138	155	97	16	542	2	67	186	127	101	58	5	546	1,088

Where are we?

아르코 시각예술지원

예술창작 지원

- 시각예술 창작산실
 - 전시지원
 - 전시사전연구지원
 - 비평지원
 - 공간지원
-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2019~)

국제교류 지원

- 예술가 해외레지던스지원
- 한국예술 국제교류지원

예술인력육성 지원

- 차세대 예술인력육성
- 현장 예술인력육성

문화향유사업 지원

- 신나는 예술여행

전시지원 및 전시사전연구지원에서 여성의 비율은 80% 이상 단, 프로젝트팀으로 지원하는 전시지원에서 여성대표 비율은 절반이하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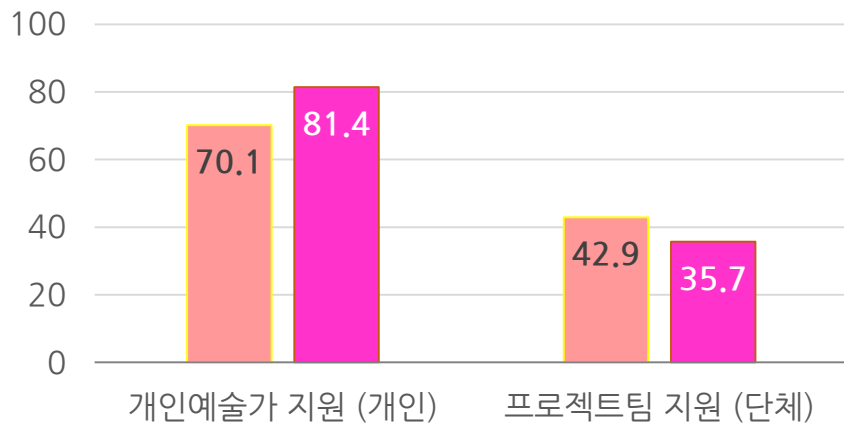
시각예술

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여성비율)

■ 지원신청 건수 기준 ■ 선정 건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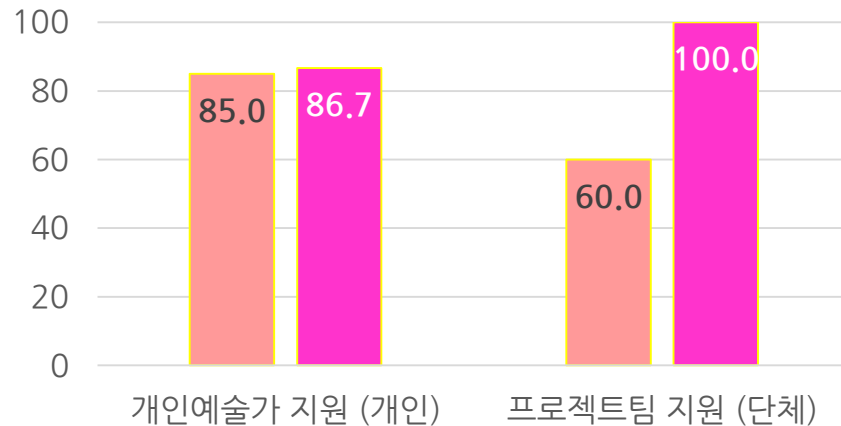


지원신청 건수	남성	여성	총합계
개인	49	115	164
단체	44	33	77
합계	93	148	241

산정 건수	남성	여성	총합계
개인	8	35	43
단체	9	5	14
합계	17	40	57

전시사전연구지원 (여성비율)

■ 지원신청 건수 기준 ■ 선정 건수 기준



지원신청 건수	남성	여성	총합계
개인	6	34	40
단체	2	3	5
합계	8	37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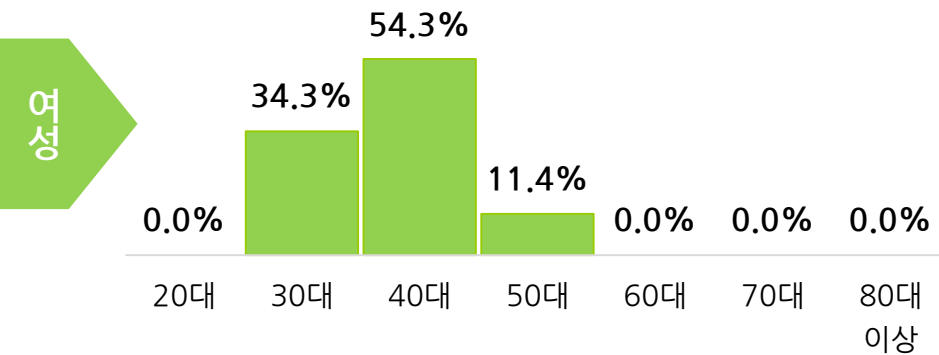
산정 건수	남성	여성	총합계
개인	2	13	15
단체	-	3	3
합계	2	16	18

전시지원에서 여성은 개인/단체에 상관없이 30~40대 중심 이에 비해 남성은 개인은 30~60대, 단체는 대표연령이 40~60대로 넓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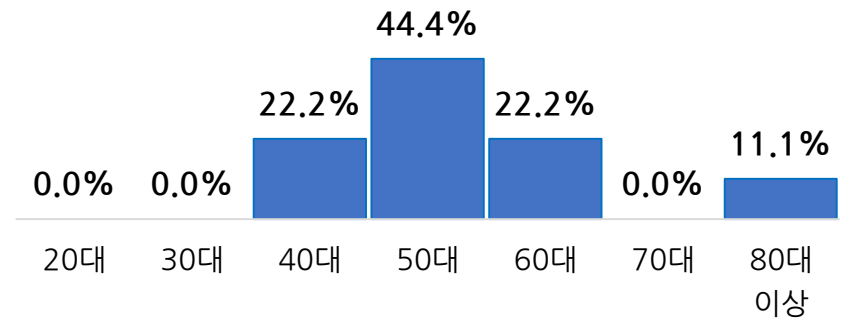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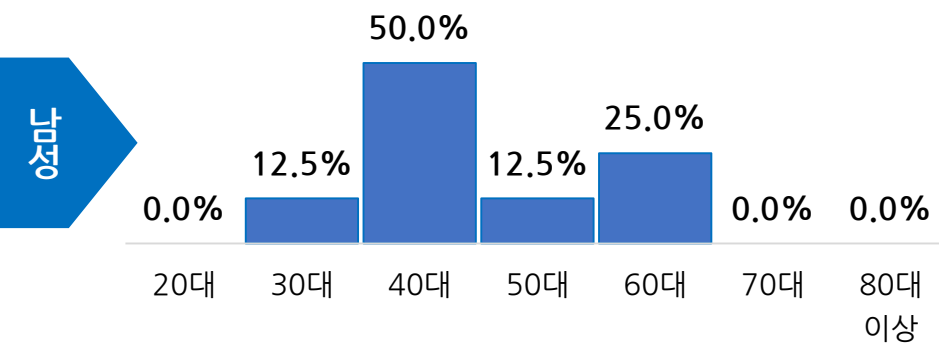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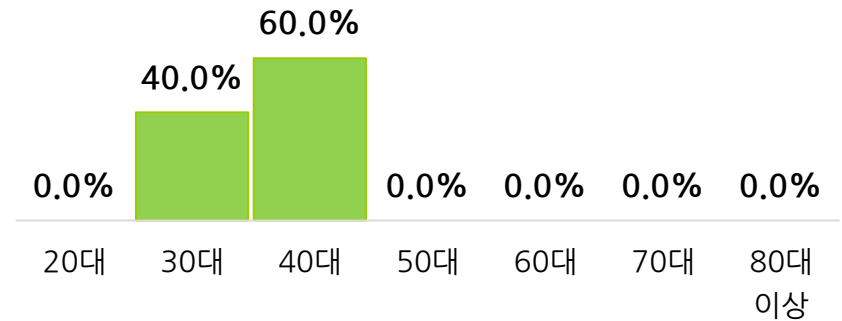
시각예술 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예술창작지원 - 전시지원〉

선정 건 수 기준 연령대별 구성비 - **개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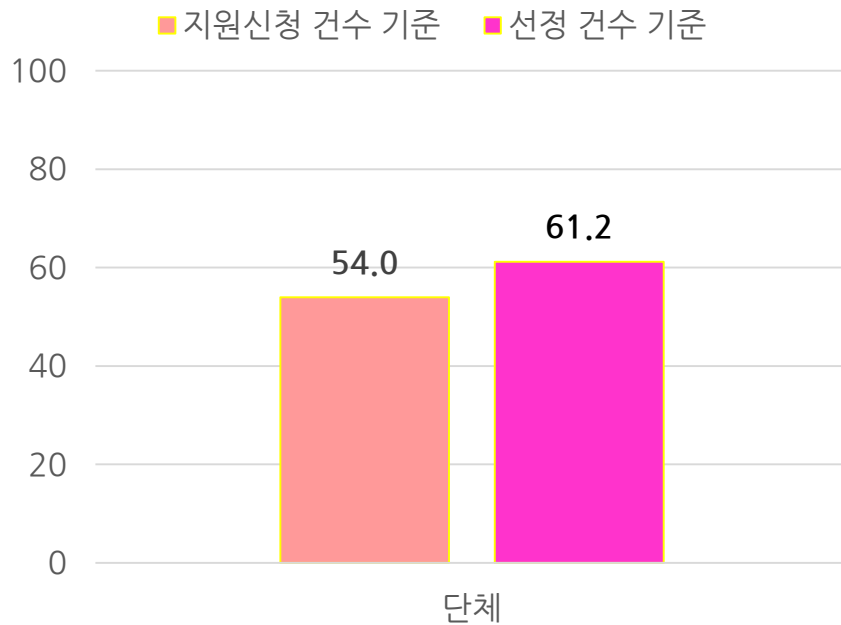
선정 건 수 기준 연령대별 구성비 - **단체** -



아르코 시각예술지원 중 단체대표가 여성인 비율이 평균 54%인 것에 비해 공간지원의 여성대표 비율은 61%로 소폭 높음

시각예술 | 예술창작지원 | 시각예술창작산실 | **공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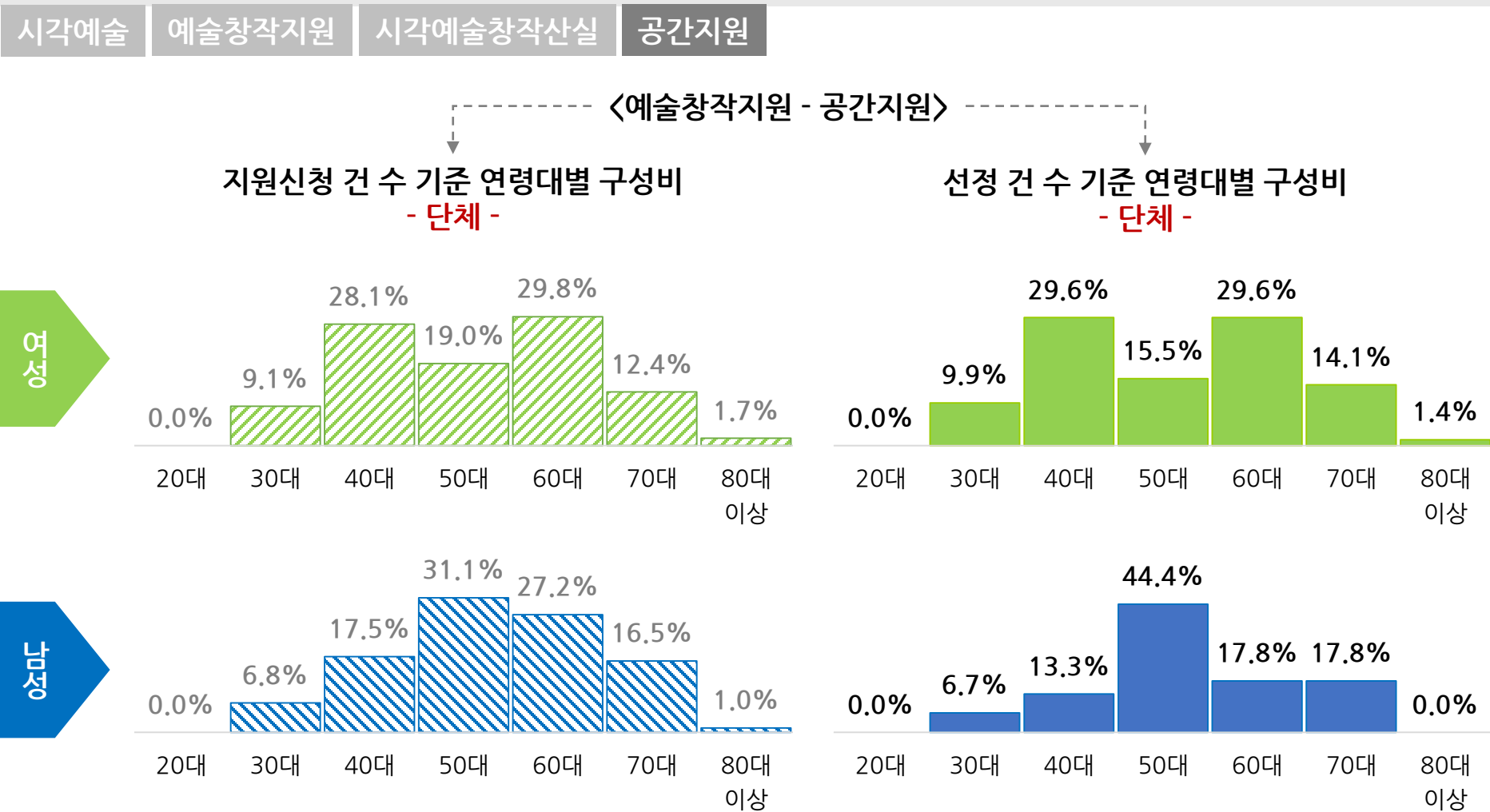
공간지원 여성대표 단체 비율 (%)



공간지원 여성대표 단체 건수 (건)

구분	남성	여성	총합계
지원신청 건수	103	121	224
선정 건수	45	71	116

공간지원에 지원신청/선정된 여성대표의 연령대 분포가 가장 넓음



Where are we?

아르코 시각예술지원

예술창작 지원

- 시각예술 창작산실
 - 전시지원
 - 전시사전연구지원
 - 비평지원
 - 공간지원
-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2019~)

국제교류 지원

- 예술가 해외레지던스지원
- 한국예술 국제교류지원

예술인력육성 지원

- 차세대 예술인력육성
- 현장 예술인력육성

문화향유사업 지원

- 신나는 예술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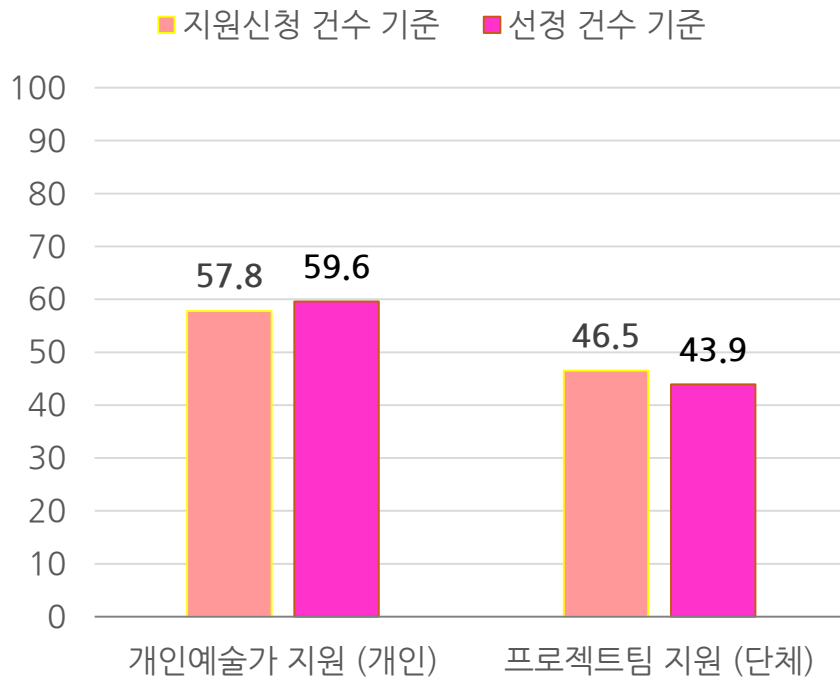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국제예술교류지원은 여성이 약 60%인 반면, 프로젝트 팀으로 구성하여 여성이 대표인 경우 약 14%p 낮음

시각예술

국제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여성비율



국제예술교류지원 지원신청/선정 건수

지원신청 건수	남성	여성	총합계
개인	163	223	386
단체	146	127	273
합계	309	350	659

선정 건수	남성	여성	총합계
개인	40	59	99
단체	32	25	57
합계	72	84	156

국제예술교류지원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40대를 중심으로 30~50대가 지원신청/선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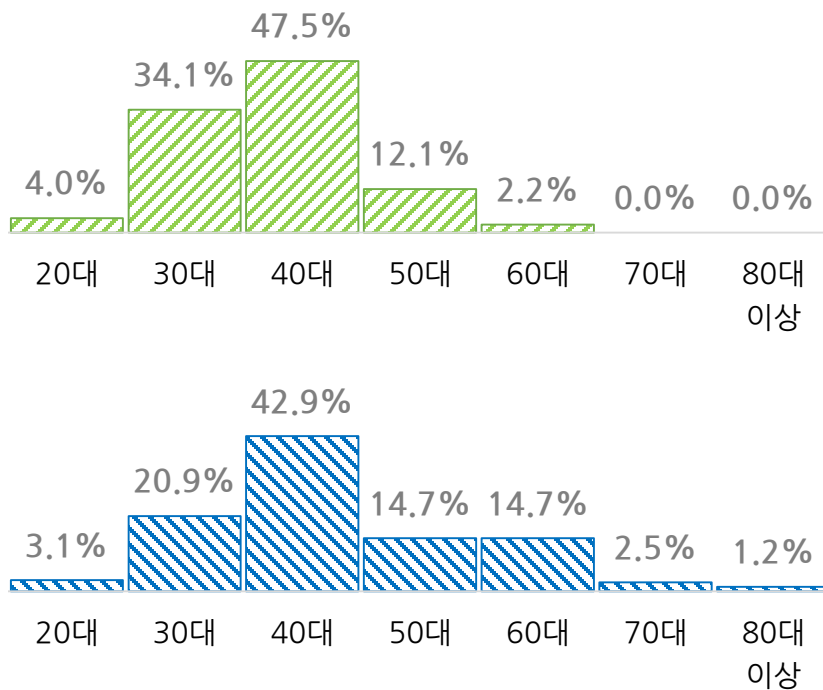
시각예술

국제교류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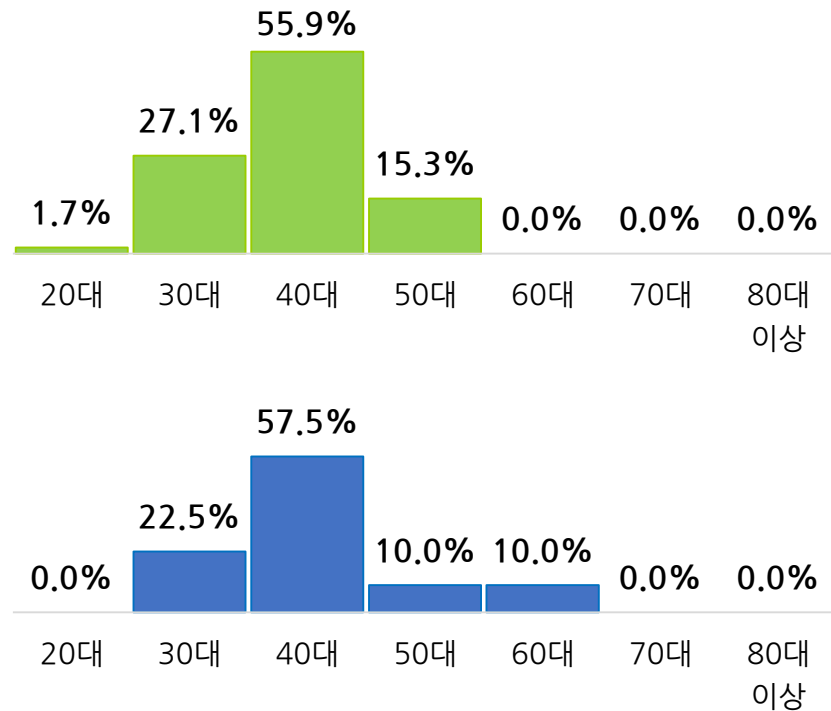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 - 국제예술교류지원〉

지원신청 건 수 기준 연령대별 구성비
- 개인 -



선정 건 수 기준 연령대별 구성비
- 개인 -



국제예술교류지원은 전시지원과 유사하게 개인과 프로젝트팀(단체)로 구성 여성은 개인과 동일하게 40대 집중, 남성은 40~70대까지 연령대 범위 넓음

시각예술

국제교류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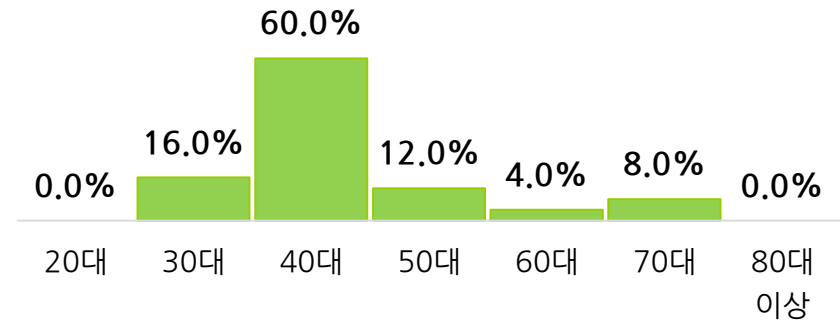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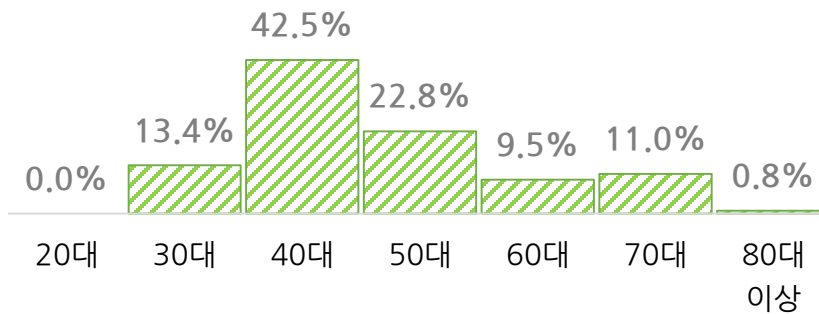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지원 - 국제예술교류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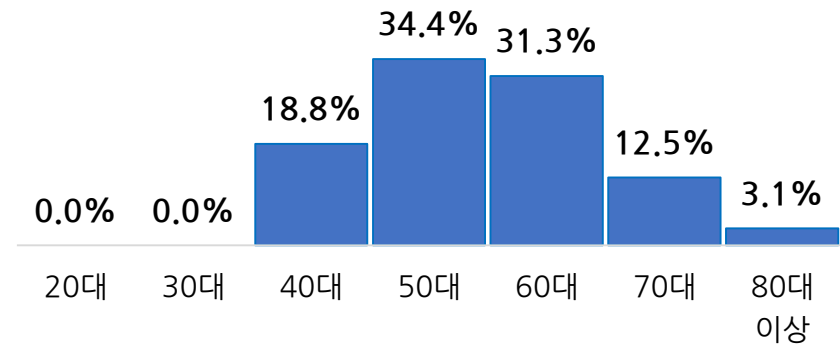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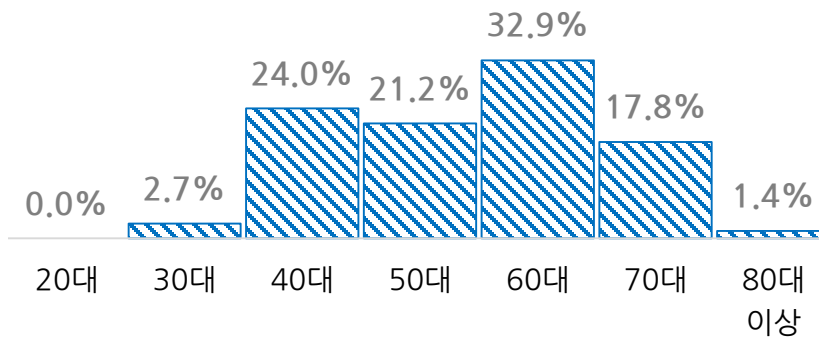
지원신청 건 수 기준 연령대별 구성비
- 단체 -

선정 건 수 기준 연령대별 구성비
- 단체 -

여성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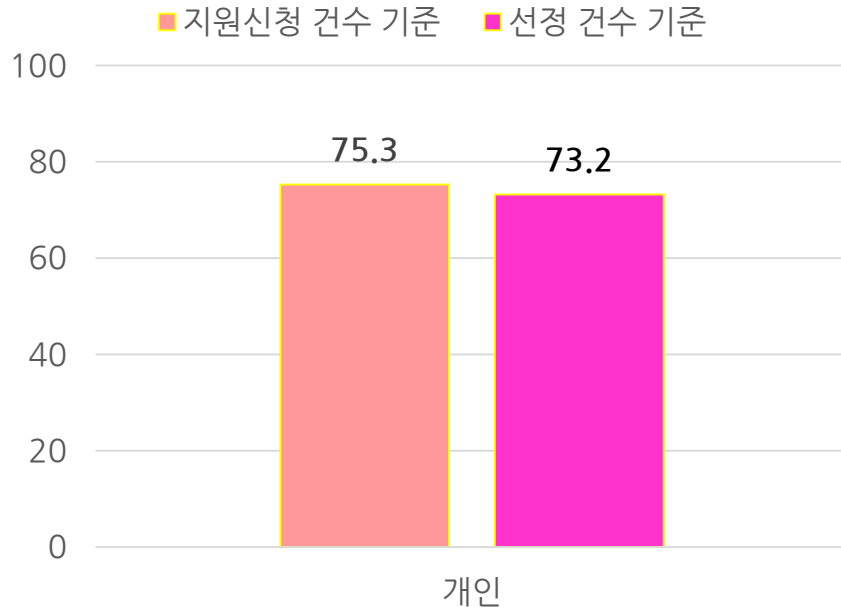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에서 여성 예술가의 비율 높은 편 (전체 개인여성예술가 비율 약 69%)

시각예술

국제교류지원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 여성 비율 (%)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 지원신청/선정 건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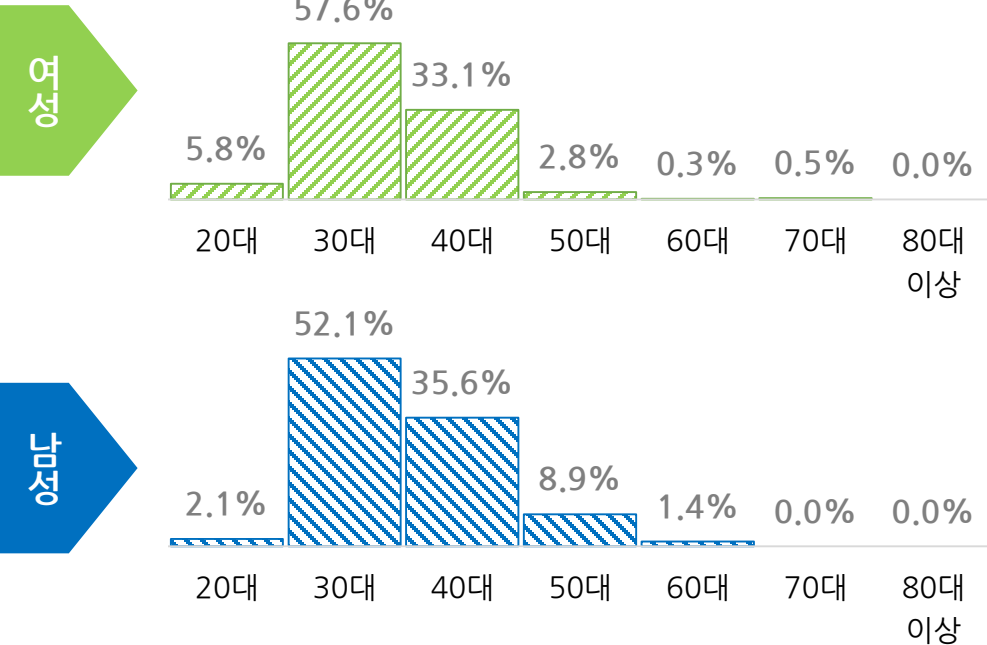
구분	남성	여성	총합계
지원신청 건수	144	399	545
선정 건수	47	146	193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은 남녀모두 30~40대에 집중

시각예술 국제교류지원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 <국제교류 -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 -----
 ↓
 지원신청 건 수 기준 연령대별 구성비
 - 개인 -

↓
 선정 건 수 기준 연령대별 구성비
 - 개인 -



Where are we?

아르코 시각예술지원

```
graph TD; A[아르코 시각예술지원] --> B[예술창작 지원]; A --> C[국제교류 지원]; A --> D[예술인력육성 지원]; A --> E[문화향유사업 지원]; B --> B1[○ 시각예술 창작산실]; B1 --> B1_1[- 전시지원]; B1 --> B1_2[- 전시사전연구지원]; B1 --> B1_3[- 비평지원]; B1 --> B1_4[- 공간지원]; B --> B2[○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2019~)]; C --> C1[○ 예술가 해외레지던스지원]; C --> C2[○ 한국예술 국제교류지원]; D --> D1[○ 차세대 예술인력육성]; D --> D2[○ 현장 예술인력육성]; E --> E1[○ 신나는 예술여행];
```

예술창작 지원

- 시각예술 창작산실
 - 전시지원
 - 전시사전연구지원
 - 비평지원
 - 공간지원
-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2019~)

국제교류 지원

- 예술가 해외레지던스지원
- 한국예술 국제교류지원

예술인력육성 지원

- 차세대 예술인력육성
- 현장 예술인력육성

문화향유사업 지원

- 신나는 예술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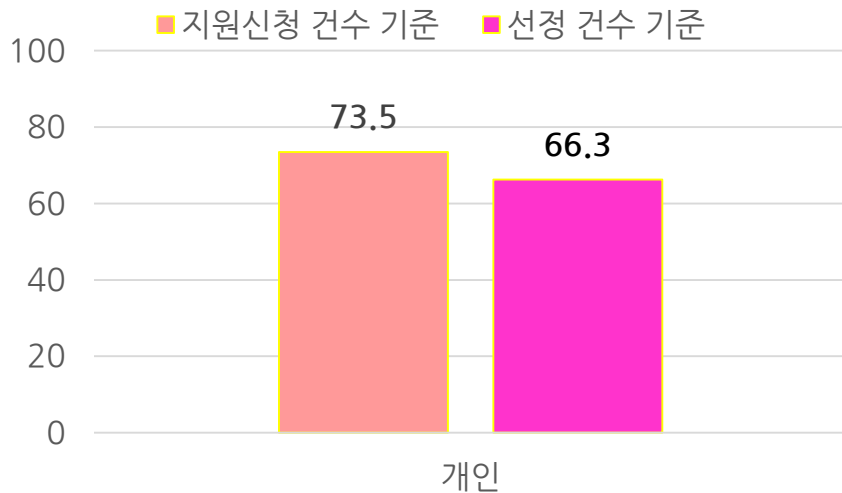
지원자의 여성비율에 비해 선정자의 여성비율이 약 10%p 가까이 낮음 20대 보다는 30대 중심으로 지원/선정되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시각예술

인력양성지원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여성 개인예술가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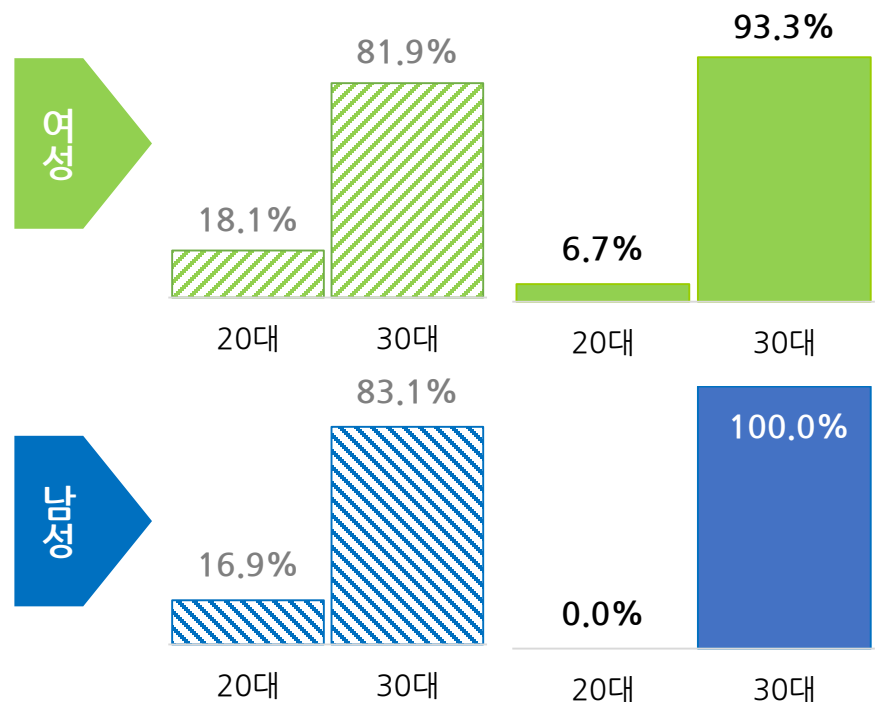


구분	남성	여성	총합계
지원신청 건수	144	399	543
선정 건수	189	371	560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령대별 구성비

지원신청 건수 기준

선정 건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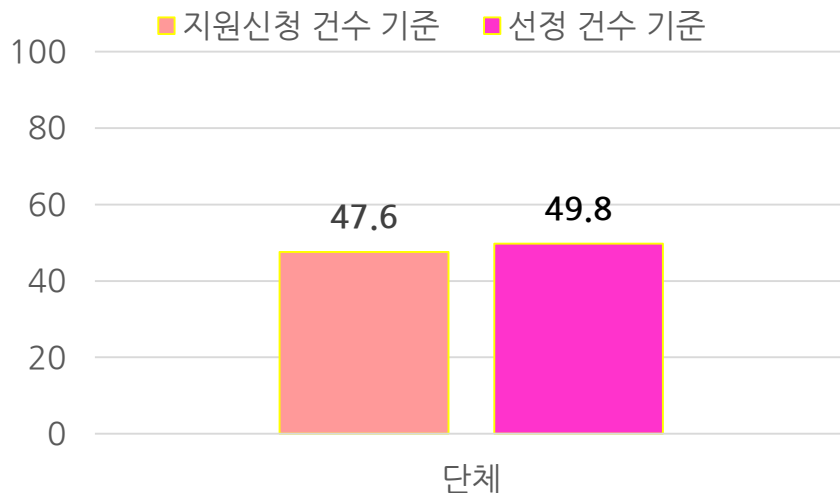
시각예술분야 단체에게 인력지원을 하는 연수단원 사업은 여성대표보다는 남성대표 중심의 단체가 선정되는 경향

시각예술

인력양성지원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연수단원지원 여성대표 단체 비율 (%)



연수단원지원 지원신청/선정 건수 (건)

구분	남성	여성	총합계
지원신청 건수	167	152	319
선정 건수	114	113	227

협회/재단이나 미술관/박물관의 영향으로 남녀대표 모두 연령대가 넓게 분포 여성대표는 40대, 남성대표는 70대의 구성비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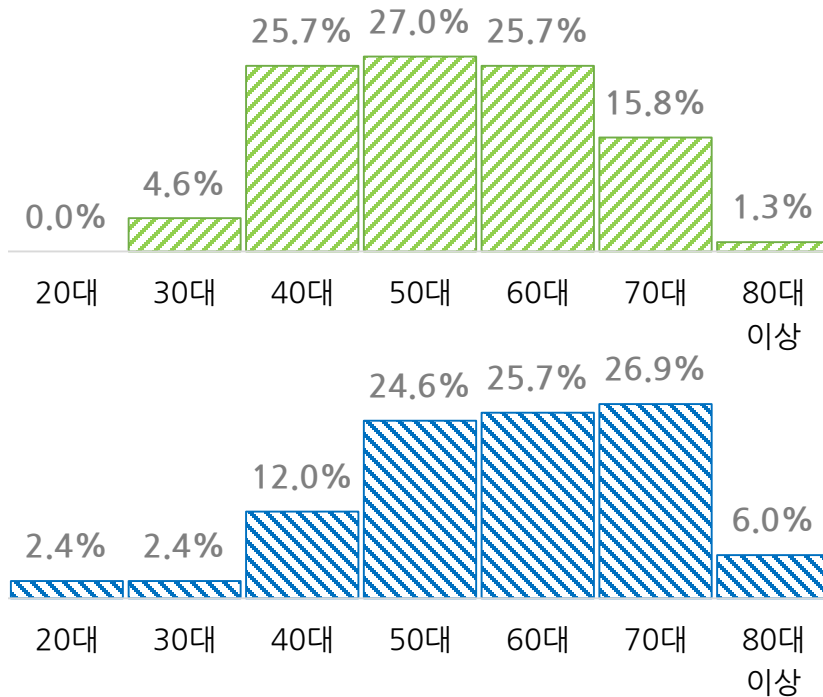
시각예술

인력양성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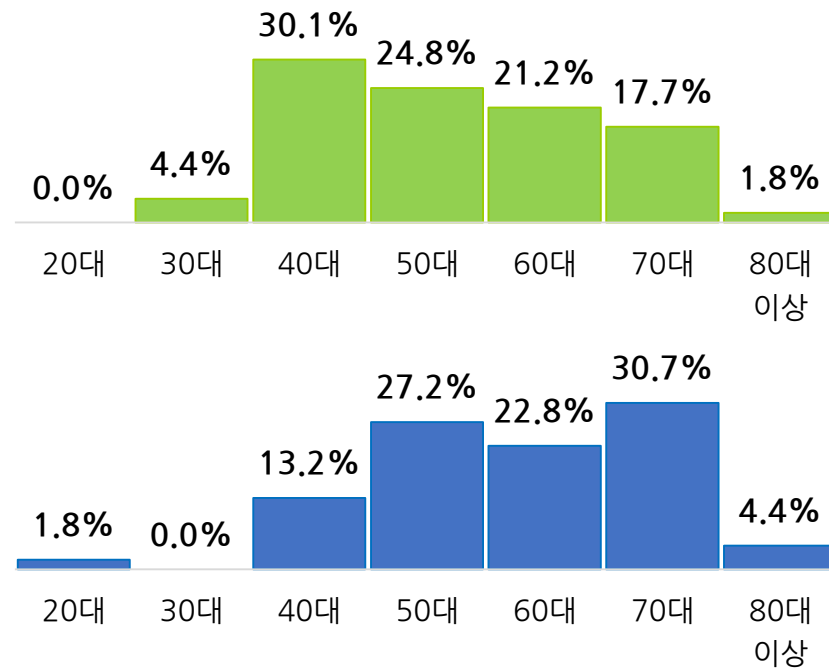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 <인력양성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

지원신청 건 수 기준 연령대별 구성비
- 단체 -



선정 건 수 기준 연령대별 구성비
- 단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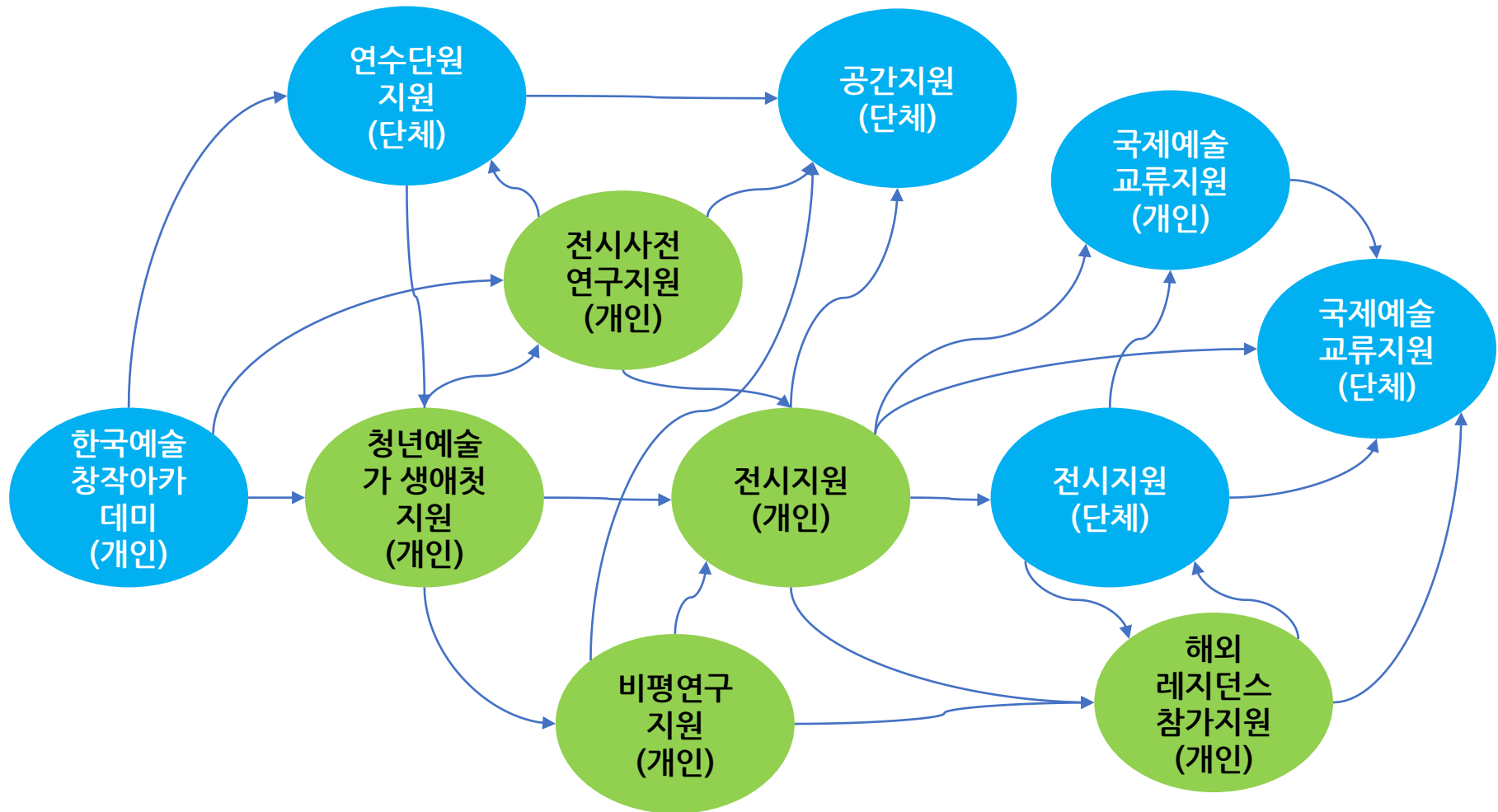
Issues to Ponder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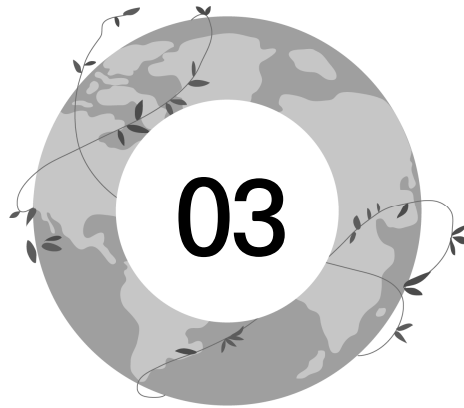
- 시각예술 고등교육 졸업자 여성비율(74%)에 비해 아르코 시각예술지원(개인)에 선정된 여성의 비율(69%)이 낮음
 - 시각예술 고등교육 졸업이후 시각분야 여성예술가의 경력단절?
 - 아르코 시각예술지원 신청에서 여성 예술가의 물리적/심리적 장벽은?
 - 아르코 시각예술지원 심사에서 성평등 관점의 적용/실행은?
- 개인지원에서 여성비율(69%)에 비해 단체지원에서 여성대표 단체의 비율(54%) 낮음
 - 창작지원에서 전시지원의 경우 개인여성예술가는 80%대, 단체대표여성은 30%대
 - 시각분야 프로젝트팀에서 여성이 리더를 하기 어렵거나 하지 않는 이유?
 - 시각 분야 문화예술단체에서 여성대표인 단체의 지원신청에 대한 부담?
 - 규모가 큰 단체의 경우 대표가 아닌 기획자의 성별을 확인?

Issues to Ponder (2/3)

- 아르코 시각예술지원에서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 차이
 - 40대 이후 개인여성예술가 및 여성대표 단체의 낮은 지원비율은 경력단절의 영향?
 - 개인과 단체의 구분만으로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 (대안공간과 미술관/박물관의 차이)
- 국내의 전시지원(시각예술 창작산실) 대비 국제예술교류지원(국제교류)에서 프로젝트팀으로 참가하는 단체의 여성대표 비율이 감소 (약 60%)
 - 여성예술가의 국내 전시활동(전시지원 - 개인 / 81.4%)이 해외(국제예술교류지원 - 단체 / 59.6%)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Issues to Ponder (3/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 문학분야 성평등 팩트체크

장 은 정
(문학평론가)

문학적 공공 영역이 구현하는 ‘젠더 (불)평등’¹⁾의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분야 지원사업들을 중심으로

장은정(문학평론가)

1. 문학출판계의 ‘특수성’에 입각한 정책 비평의 위상

최근 3~4년 간 문학 분야에서는 ‘문학출판계’라는 장(場) 자체가 중요한 비평적 대상으로 설정되기 시작했다. 신경숙 표절 사건이 발생했던 2015년 6월, 문학출판계의 많은 구성원들은 이 사건을 단지 한 창작자의 창작 윤리 문제로 바라보는 대신 주요 대형 출판사들이 50년 넘게 운영해온 문예지 체제에서 비롯된 비평 담론의 고착화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 신경숙 사건 이전의 ‘문학작품’이 작가의 고유한 산물로 받아들여졌던 것과 다르게 문학이 어떠한 환경에서 창작되고 출판되며 또한 어떠한 비평적 조건 속에서 그 문학적 가치가 형성되는 것인지, 문학출판계의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그 중심점이 명확히 옮겨갔음을 보여준다. 같은 해인 9월, ‘비평 없는 문학잡지’를 전면내 내세운 《악스트》의 출현은 단지 문학출판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서 넘어서서 ‘다른’ 문학출판계를 모색해보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졌다.

1) 전체 포럼의 중요한 키워드가 ‘성 평등’인 것과 다르게 이 글에서는 ‘성 평등’ 대신 ‘젠더 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젠더’는 생물학적 특성(염색체, 생식기, 호르몬을 비롯한 여러 신체적 특징)을 지칭하는 ‘섹스’와 구분되는 용어로서, 사회적 역할, 위치, 행동, 정체성 등을 뜻하는 문화적 용어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들은 모두 생물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므로 정책 비평의 기준으로는 사실상 ‘성 평등’이 더 정확한 기술이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젠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 이유는 최소한 정책비평의 분야에서 ‘문화정책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질문 하에 한 예술가의 정체성은 그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규정되기 보다는 스스로 선택하거나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요인으로서 간주되는 것을 최종적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젠더 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악스트》 이후 ‘문예지 혁신’이라는 주요한 의제가 문학장을 휩쓸면서 기존의 잡지들이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리뉴얼되거나 폐간 되고 편당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독립잡지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2016년 10월,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의 등장은 ‘문학출판계’라는 장(場)의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공유되고 있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숙고되어야 한다. 신경숙 표절 사건과 문예지 혁신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설정된 것이 문학잡지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비평장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촉발시켰다면,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문학출판계가 주요한 공모전에 통과해야만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부여 받게 되는 ‘등단제도’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술고에서의 ‘입시제도’, 예술대학에서의 사제 관계, 등단제도를 통과하고자 하는 이들이 주로 수강하는 사설업체의 문학창작 수업에서의 위계관계에 이르기까지 문학출판계가 끝없는 경쟁시스템과 그에서 비롯된 위계관계로 촘촘히 엮여있음을 낱설게 목도하게 되는 충격적인 계기로 작동했다. 2016년의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를 통해 발화한 많은 피해자들이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 세대에 속해 있었다면, 2018년 최영미 시인의 미투는 고은이라는 원로 시인을 가해자로 지목함으로써 문학출판계의 젠더 불평등에 의한 폭력 구조가 단지 최근의 일이 아니라 문학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사적 요소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문학출판계는 최근 3~4년 동안 그야말로 ‘전면적인’ 변화의 시기 속에 놓여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격변의 시기 속에서 언제나 주요하게 문제적 대상이자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설정된 것이 대형 출판사라는 점이다. 신경숙 표절 사태에서도 그 비판의 대상은 대형출판사들을 향했고, 2016년에 지목된 성폭력 가해자들이 특정 출판사에서 시집을 낸 시인들이라는 점을 들어 출판사 측에 그 책임을 묻거나 대응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출판사와 계약을 맺을 때 ‘성폭력’ 조항을 넣는 것 역시 개인과 기업 간

의 관계 하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인데, 2019년 현재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의아한 것은 문학출판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요소로서 공공의 영역이 전혀 호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독자들의 문제의식 역시 마찬가지다. 한 온라인 대형 서점 직원들의 남녀성비와 대표자 성비를 문제 삼는 담론이 크게 형성된 바 있지만 이 역시 모두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문학출판계에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같은 문제의식이 발생한 바가 없다. 물론 2016년에 결성된 여성예술인연대는 예술인 복지재단에 상설 성폭력 상담기구를 설치하기를 요구하거나 성 평등교육의 의무 실시를 요구하고 예술기관에 성폭력 비리와 관련된 채용 규정 및 징계 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유독 문학계에서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서울문화재단을 둘러싼 연극계의 빗발치는 비판과 적극적인 요구안들과 비교한다면 문학계의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요구는 거의 무관심에 가깝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분야 지원 사업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문학출판계의 주요한 변화들과 그 변화 속에서 누락되어 있는 ‘공공영역’의 위상을 우선 살핀 것은 2019년 올해 새로 발족된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마련한 2차 오픈 테이블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였는가?> 포럼이 현재 문학계에서 갖는 위치성을 우선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문학계에서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이란 단순히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으로서만 한정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러한 담론 내부에 이 포럼을 위치시킨다면 던질 수 있는 질문들 역시 제한적인데, 예술위원회 문학분야 지원 사업에 대한 평면적인 해석 및 평가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학계 내에서 활발히 활성화된 젠더 이슈 담론 내에 공공기관의 수행 사업들을 위치시킨다면 어떨까? 지원 사업들에 참여한 사람들의 남녀성비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한

‘젠더 (불)평등’이라는 용어가 문학계 내에서 어떻게 사유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공공기관이 활성화시켜야 하는 문학계의 공공영역이 갖는 특수성이 무엇인지를 사유하게 되는 계기로 작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

2. 문학 정책 분야에서의 ‘젠더 평등’ 담론의 부재

2019년 10월 2일, 예술위에서 진행한 2019년 2분기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도서선정 심의 결과가 얼마 전 발표되었을 때, SNS에서는 시 분야 심사평을 두고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²⁾ 시라는 장르는 타 분야 예술장르 중에서도 그 작품의 성취를 평가하는 기준이 특히나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비평적 논리를 꼼꼼히 개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 선정 작품들에 대한 비난과 폄하에 가까운 발언을 심사평으로 게시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태를 ‘세대론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압도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시 분야 2차 심사위원 전원이 40~50년대생 출생자들이었으며 소위 청년 세대로 분류되는 젊은 작가들의 시집이 선정자에서 대거 제외된 사실이 위 심사평에 대한 반발 요인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태에 대해 젠더 불평등 관점에서 접근하는 입장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심사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문제가 된 시 분야 2차 심의위원 성별은 전원 남성이며, 소설, 수필, 아동/청소년, 평론/희곡 분야를 모두 통틀어서 총 14명 심의위원 중에서 여성은 단 2명에 그쳤다. 12:2이라는 극명히 대비되는

2) 문제가 되었던 심사평은 다음과 같다. “시 부분의 2차 심의 심의위원들은 1) 소통이 안 되는 시집, 2) 시성에 이르지 못한 시집, 3) 시의 문법을 잘 모르는 시집이 여전히 많다는 등의 얘기를 나누었다. 더불어 4) 한국어 문장을 잘 다루지 못하는 언어몽치를 시라고 내놓은 경우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2019년 2분기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도서선정 심의 결과 발표 시 분야 심사평 중 일부 인용.

https://www.arko.or.kr/m1_01/m2_01/m3_01/m4_03.do?mode=view&page=&cid=1602490&sf_icon_category=cw00000020

성 비율이 왜 작가나 독자 모두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

문학계는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민음사, 2016)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문학평론가들로 이루어진 문학비평 담론을 통하지 않은 ‘여성 독자’들의 가시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 2008년에 출간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창비) 이후 처음으로 백만부 판매를 돌파한 첫 사례이다. 2018년에 일본으로 번역된 이후 2019년 8월 기준 일본에서도 총 13만부 이상 판매되면서 한국소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다른 여성소설가들의 번역 역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³⁾ 현재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작가들 거의 대부분이 여성작가들이며, 출판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키워드는 단연 ‘여성서사’일 것이다. 여성이 여성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고 싶어 하는 여성독자들이 존재하는 조건이 형성되고서야 비로소 여성평론가들 역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낱말이 흩어져 있던 여성평론가들이 서로의 논의를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참조하고 확장하고 자발적으로 이어받으면서 여성 서사를 다각도로 비평하면서 페미니즘 비평 담론을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중이며, 이는 최근 쿼어 서사의 등장과 더불어 쿼어 담론과 트랜스 담론으로도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문학계의 젠더 이슈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문학 분야의 정책 영역에 대해서는 젠더 불평등 관점의 문제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일까?

물론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맥락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복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공기관이 문학 분야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학계가 겪어내고 있는 여러 변화들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정말 문학 분야의 지원 사업들은 현재 문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여

3) 일본 출판시장에서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이 갖는 의의는 다음의 글을 참조. 구라모토 사오리, 번역 송미, 「K문학이 견인하는 ‘연대’의 가능성」, 문학웹진 《비유》, 2019년 6월, 18호.
http://view.sfac.or.kr/html/epi_view.asp?cover_type=VWCON00002&cover_idx=86&page=1&epi_idx=507

러 이슈들과 무관한 것일까? 만약 무관하게 작동되어 왔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분리되고 말았을까? 이러한 질문을 중요한 전제로 삼아 문학분야의 지원사업이 작동하는 경계의 안팎을 드러내면서 문학출판계에서의 예술위원회가 현재 수행 중인 기능이 무엇인지, 앞으로 예술위원회가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만들어나가야 하는 공공영역이 무엇인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3. 문학계 지원 사업에서의 ‘기회’와 ‘평등’이란 무엇인가?

3-1. 지원자의 자격을 갖추기 전의 ‘기회’와 ‘평등’

문학출판계의 최근 3~4년 간 벌어진 여러 변화들이 갖는 젠더 관점의 특수성을 우선 짚고, 그러한 특수성 하에서 공공영역에 대한 담론이 부채한다는 사실을 우선 지적한 것은 이 포럼의 제목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였는가?> 라는 질문을 ‘문학출판계’에 적용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특수한 지점들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포럼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기회’, ‘평등’, ‘과정’, ‘공정’이라는 네 개의 개념은 그동안 문학 분야의 지원 사업 내에서 어떻게 작동되었을까? 어째서 페미니즘 이슈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문학계에서 ‘젠더 평등’의 관점이 공공영역에서는 사유되지 않고 있을까? 문학계에서 문학 정책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활성화되어야 하는 공공영역은 또한 무엇인지, 성별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시화할 수 있는 것과 가시화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글이 대상으로 다루는 문학 분야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대분류(사업명)	중분류(세부사업명)	소분류(관리코드명)
A. 국제교류지원	㉠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①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②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대분류(사업명)	중분류(세부사업명)	소분류(관리코드명)
B. 문화예술향유사업지원	㉓ 신나는예술여행	③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④ 국제예술교류지원
		⑤ 순회처매칭형
		⑥ 발굴형
C. 예술인력육성	㉔ 차세대예술인력육성	⑦ 대규모우수콘텐츠확산프로그램
D. 예술창작지원	㉕ 문학창작산실	⑧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⑨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
		⑩ 문예지발간지원
		⑪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⑫ 문학행사및연구지원
		⑬ 아르코문학창작기금
		⑭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㉖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표 1 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 분야 지원사업 종류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대분류를 알파벳 순으로, 중분류를 한글 자음 순으로, 소분류를 숫자 순서로 매겼다. 소분류에 따르면 총 14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들 중에서 오로지 개인의 자격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⑧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와 ⑬아르코문학창작기금 ⑭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이며, 단체의 자격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⑩문예지발간사업과 ⑪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그리고 ⑫문학행사및연구지원 사업이다. 개인과 단체 어느 형태로든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①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과 ③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④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이 해당한다. 단체의 경우, 그 단체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들의 성별 구분과 세대 구분 등을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분석해야 단체 구성의 성별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해석해낼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데이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성별로 표기한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음을 밝혀둔다.

장애파트너스그룹에서 제공 받은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2016~2019년 총 4년 간 예술위의 문학분야 지원사업에 응모한 전체 지원자들의 성별 분포는 여성은 2,277명, 남성은 1,929명으로 여성이 8.2%의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만약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 문학계에서는 성비가 비슷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 영역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의 남녀성비는 그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국어국문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4년제 대학생의 경우 여성이 4,831명, 남성은 1,780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무려 3,051명이 더 많아서 전체 졸업생의 73%를 차지하여 무려 46%의 차이를 보인다. 대학원의 경우에는 여성이 874명, 남성은 227명으로서 여성이 전체 졸업생의 79%를 차지하여 58%의 차이를 보인다. 물론 국문학을 전공한 학생 모두가 작가로서의 꿈을 안고 국문과에 진학하는 것은 아니다. 졸업 이후 방송계나 출판계 혹은 전공과 전혀 관련 없는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국어국문학 대학원 진학은 연구자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학 분야의 지원사업 지원자 유입율을 직접 따지는 것이 그리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

그렇다면 작가로서의 진로를 이미 결정하고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기에 입학 당시부터 실기 점수를 대입 합격의 기준으로 반영하는 문예창작학과 전공자들의 경우는 어떨까? 문예창작학 전공의 대학과 대학원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어서 우선적으로 예술전문대학 출신의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여성은 312명, 남성은 64명으로서 여성이 248명이 더 많아 남녀 비율이 무려 66%가 차이난다. 즉, 최소 46~66% 정도 차이가 나는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 졸업생의 성비가 지원사업 응모자로 옮겨오면 8.2%로 줄어드는 것이다. 문예창작학과 출신의 전공자들에 한정한다고 해도 문학 분야 지원사업에 도달하기까지의 확률이 어째서 여성보다 남성이 현저히 더 높은 것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에 도달하기 위한 그 과정이 어떠한 매커니즘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필요로 한다. 만일 이 과정 속에 젠더 불평등이 작동 중이라면 공공기관은 이 과정에 어떠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맥락을 무시한 채로 지원사업 내부에서만 젠더 불평등을 분석하게 되면 지원자의 자격에 이르기 전에 탈락하게 되는 여성 문학인들은 공공영역에서 처

음부터 제외되고 말 것이다.

2019년 7월 1일에 개최된 성평등 소위원회 회의 첫 번째 오픈테이블의 발표자였던 김혜인은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지형, 왜 우리는 변화를 얘기하는가」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문화예술계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로서 “일반적 성비로 따지면, 여성의 비율이 높아 다른 분야보다 나은 곳”으로 인식되지만 주요 결정권한의 성비는 왜 반대로 나타나는지 또한 어째서 예술계의 미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지를 발표의 여는 질문으로 삼은 바 있다. 이 질문을 필두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는 성 불평등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또한 가장 심각한 불평등이 어디서 일어나며 문화예술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성평등한 모습’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도 묻는다.⁴⁾ 이는 문학계의 젠더 (불)평등을 사유할 때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질문들이다. 만일 ‘젠더 (불)평등’의 의미를 고찰할 때, ‘남녀동수제’라는 기계적인 5:5 대응을 평등의 지표로 삼게 되면 문학 분야의 지원자가 되기도 전에 작동하는 젠더 불평등한 현실에 대해 공공기관은 아무런 개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3-2. 지원자로서의 ‘기회’와 ‘평등’

⑬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은 2016년과 2017년에 2년 간 잠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위의 문학분야 사업 중 1,690백만원이라는 가장 높은 금액의 지원 사업일 뿐 아니라 문학 분야 전체 지원자 중에서 그 비율이 77.2%에 달하는 가장 큰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시조, 소설, 희곡, 아동문학(동시, 동화), 수필, 평론 등 문학 분야에 종사하는 작가 중에서 (1)등단 5년 이상의 작가이거나 (2)등단 5년 미만의 작가 중 만 36세 이상의 작가를 대상으로 하며 이때 ‘등단’이란 (1)신춘문예

4) 김혜인,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지형, 왜 우리는 변화를 얘기하는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주최 《성평등 예술지원정책》 제1차 오픈테이블 자료집 p.46.

당선 (2)단행본 출간 (3)신인문학상 수상을 의미한다. 등단 년차와 생물학적 나이를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은 나이와 등단년도가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대에 등단제도를 일찍 통과한 경우, 만 36세 이하이면서 등단 5년 이상의 기성 작가로 활동할 수도 있고, 30대 중후반 이후로 등단제도를 통과한 경우, 만 36세 이상이지만 등단 5년 미만의 신인일 수도 있다. 문학출판계에서 ‘작가’로 활동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등단제도’는 타 예술 분야와의 큰 차이점이며 이 사업에서 5년을 기점으로 지원 신청 대상을 구분한 것은 작가들이 대체로 첫 단행본을 출간하는 데까지 평균 5년이 소요 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눈 여겨 보아야 할 점은 문학상을 수상한 적이 있거나 개인 작품집 발간 실적이 있는 작가, 혹은 2020년까지 개인 작품집 발간 계획이 이미 있어서 발간계약서 첨부 시 우대 조건이 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이 문학출판계 구조 내에서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출판계에서 작가가 활동하게 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등단제도를 통해 작가로서의 (제도적) 자격을 획득한 자가 5년을 기점으로 자신의 작품집을 2년 내에 출간하기 위해서는 시의 경우 50~60편 정도, 단편소설의 경우 10편 정도의 작품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출판사에서 출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문예지에서 작품을 연달아 발표할 만큼 문학계 내에서 작가로서의 인지도를 확보한 상태여야 가능한 셈이다. 즉, 등단년도와 생물학적 나이를 동시에 고려하여 (1)등단 5년 이상의 작가이거나 (2)등단 5년 미만의 작가 중 만 36세 이상의 작가를 대상으로, 문학상 수상 및 작품집 발간 실적을 고려하고 발간계약서 첨부 시 우대해준다는 것은 이미 문학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기반을 확보한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뜻이다.

사실상 ⑬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을 때 성별 데이터는 여성이 선정자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현재 이 사업

내에서는 젠더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쉽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⑬번 사업에서 선정자의 성비가 거의 2배 이상 차이나는 압도적인 비율에도 불구하고 문학 분야의 전체 지원 사업의 선정자 성비를 살펴보면 여성은 50.2%, 남성은 49.2%로서 거의 5:5의 비율에 가까워진다는 점이다. 어쩌서 문학 분야 지원사업에서 전체 지원자의 무려 77.2%를 차지하는 ⑬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의 여성 비율이 전체 사업에서는 5:5로 남녀동수가 되는 것일까? 어쩌면 남성의 비율을 압도적으로 높이는 특정한 사업이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개인의 자격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 ⑬아르코문학창작기금 ⑭청년예술가생애초기지원에서는 여성지원자의 선정이 도드라지게 높지만, 단체의 자격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⑩문예지발간사업과 ⑪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사업에서는 남성 대표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개인의 자격으로 지원할 때와 단체의 자격으로 지원할 때 젠더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으로 등장한다. 다음의 표는 문학출판계의 지원사업에서 젠더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매우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분류(사업명)	성별	유형	선정건수
D. 예술창작지원	여성	개인	129
		단체	52
	남성	개인	53
		단체	115

표 2 예술창작지원 사업에서의 개인/단체 유형에 따른 선정자 성별 분석

위의 표는 여성들이 주로 개인으로서의 작가 정체성으로 활동하는 반면, 남성들의 경우 단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위의 표가 문학출판계에서 갖는 의미는 훨씬 더 상징적이다. 왜냐하면 위의 표에서 등장하는 남성 대표자의 단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등장하는 사업은 ⑩문예지발간지원사업이기 때문이다. 문학출판계에서 문학잡지가 갖는 위상은 문학계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

소다. 글을 열며 2015년 6월 신경숙 표절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문학계의 많은 구성원들이 이 사건을 단지 한 창작자의 창작 윤리 문제로 바라보는 대신 주요 대형 출판사들이 50년 넘게 운영해온 문예지 체제에서 비롯된 비평 담론의 고착화에서 그 원인을 찾은 바 있음을 언급했다. 문학출판계는 독자와 작가가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학잡지’라는 매체를 중간 매개로 하여 교류한다. 즉 문학출판계의 제도권 내에서 작가로 활동한다는 것은 출판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문학잡지에 작품을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독자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구조로 인해 문학잡지라는 매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작가에게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을 뜻한다. 또한 많은 문학잡지들이 등단제도에 해당하는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기에 문학잡지를 운영한다는 것은 ‘누가 작가가 될 자격을 갖추었는가’, ‘한정된 지면 중 누가 작품을 발표할 만한 실력을 갖춘 훌륭한 작가인가’를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뜻이다. “나한테 직접 원고 주면 2차 심사부터 볼 수 있는 거다.” 혹은 “개 시 같은 실험 정신 가득한 시는 나니까 뽑아준 거다. 너도 그렇게 쓰면 내가 뽑아줄 수 있어.”와 같은 발언들⁵⁾은 이러한 등단제도와 문학잡지의 청탁 권한을 권력으로 남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그런데 문학 매체를 대표하는 성별이 남성이며 74%를 차지한다는 것은 현재 문학출판계의 중요한 의사결정 권력을 남성이 쥐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4. 문학계 지원 사업에서의 ‘과정’과 ‘공정’

글을 열며, 문학계에서는 페미니즘 이슈가 활발히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호명된 바 없음을 지적했다. 만일 개인의 자격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⑧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5) 김지현 기자, <문단 내 성폭력 피해자 연대모임 “아가미” 2차 좌담회 ‘파급력 파티’ 열려>, 뉴스페이퍼, 2019년 8월 2일 자 기사.

와 ⑬아르코문학창작기금, ⑭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사업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⑬과 ⑭ 사업에서의 선정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⑧번 사업의 경우 남녀 성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의 심의 결과만 보서는 문학계에 젠더 불평등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문학출판계의 등단제도와 문학잡지 체제는 ‘누가 작가가 될 것인가’ 또는 ‘누가 훌륭한 작가인가’를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러한 구조 자체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영역에서는 쉽게 가시화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⑩문예지발간지원사업과 ⑪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사업의 선정결과는 모두 문학잡지 명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매체의 대표자 성별이 완전히 지워지기 때문이다.

아마 이것이 젠더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는 문학계임에도 공공영역이 그 문제 해결의 중요한 주체로 설정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 짐작된다. 이는 만일 예술위가 문학 분야의 지원사업 중 ⑩문예지발간사업과 ⑪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사업에서 대표자 성별을 심의 결과에 직접 표기하거나, 지원 단체 구성원의 젠더 평등 지표를 도입하여 심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문학출판계의 젠더 불평등 구조 문제를 공공영역이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재생산하는 것에 동원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예술위에서 시행 중인 지원 사업들의 선정자들의 성별 대조표만으로는 문학계가 가진 특수한 젠더 불평등 구조를 가시화할 수도 없으며, 가시화조차 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없음은 더욱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문학계 지원 사업에서 ‘과정’과 ‘공정’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현재 예술위에서 시행 중인 문학계의 지원 사업은 모두 등단제도를 통과한 작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문학출판계는 단지 제도적 자격을 부여받은 작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작가가 되길 꿈꾸는 청소년들이 문예창작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입시를 통과하는 중요한 조건인 백일장 당선 이력을 남기기

위해 술한 백일장에서 경쟁한다. 그러한 백일장에서 심사를 하는 사람들은 주요 문학단체의 구성원들이며, 백일장을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인력 역시 그 단체에 소속된 신인 작가들이 작은 일거리로 나눠받으면서 일당을 받아 생활비에 보탠다. 백일장 이력을 쌓아 문예창작학과 예술대학에 입학한 대학생들은 다시 문예창작학과 대학 입시를 통과하려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기 시험을 위한 과외 수업을 하기 시작한다. 예술대학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경우에도 정규직 교수의 자리는 한정적이므로 비정규직 강사들은 임용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논문 실적과 강의 경력을 쌓는다.

주요 출판사가 운영하는 문학잡지는 그 자체로는 이익이 남지 않지만, 등단제도와 청탁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획득되는 상징 권력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렇게 획득된 상징권력은 해당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여러 시집과 소설집들의 문학적 가치를 독자들에게 설득하는 마케팅 요소로 동원된다. 어렵게 등단제도를 통과한 작가들은 이제 첫 작품집을 출간할 수 있는 작가의 소수 명단에 들기 위해 경쟁하게 되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첫 책을 발간한 작가들은 다시 발간된 작품집들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문학상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편집자들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고 주요 결정권을 가진 대표와 임원들, 계약직과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편집자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위계는 존재한다. 그리고 이 모든 출판계의 다양한 위계 구조마다 젠더 불평등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결정적이다.

문학출판계는 이처럼 대학 입시제도와 문학출판 산업이 등단제도와 문학잡지라는 매체를 통해 촘촘하게 맞물려 있는 구조이며, 이는 문학계의 젠더 불평등을 떠받드는 주요한 구조이다. 글을 열며 2015년의 신경숙 표절 사건 및 연이은 여러 주요 문예지들의 혁신, 2016년 10월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2018년 최영미 시인의 미투에 이르기까지 최근 3~4년 간 문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변화들이 앞서 나열한 문학계가 작동되는 구조의 문제점을 가시화하는 중요한 사건들임

을 피력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이 전혀 문제 해결의 주체로 상정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등단제도를 거친 작가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예술위의 문학계 지원사업들은 ‘누가 작가인가’를 기존 출판산업이 필터링하고 있는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에 문학출판계의 구조를 재구성하기는커녕 마치 문학출판계의 작은 부품으로서 그 구조 속에 완전히 포섭되어 있는 것이다.

예술위의 성평등 소위원회가 주최한 첫 번째 오픈데이블의 발표자였던 박소현은 「성평등한 예술지원정책 상상하기」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현재의 예술위는 단순히 지원금을 분배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매우 기능적인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예술위는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하여 우리 사회에서 예술의 중요성과 가치를 지지하고 알리는 기관이어야 함을 피력한 바 있다. 이 발표에서 특히 중요한 대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슬로건인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에서의 ‘훌륭한 예술’이 성평등과 연계된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문학’이라는 장르는 한 편으로는 대학 입시제도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출판 사업 구조에 의해서 성립되고 있으며 이는 문학계의 젠더 불평등을 작동시키는 주요한 구조이기도 하다. 대학 입시제도와 출판 산업이 만들어낸 촘촘한 경쟁 시스템에서 겨우 살아남은 이들만을 예술가로 인정하고 오로지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문화예술 정책의 유일한 역할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문학출판계 구조 속에서 필연적으로 탈락할 수밖에 없는 이들, 그리하여 예술정책에 지원할 자격조차 갖지 못한 이들이 글쓰기를 이어나가는 것이 개인의 몫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까? 또한 겨우 이 구조 속에 들어온 작가들 중에서도 매체를 가지고 ‘누가 작가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자와 ‘좋은 작가’로서 선택 받아야 하는 개인 예술인의 위치가 성별로 인해 분할되는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예술

위의 문학 분야는 어떤 예술정책을 펼쳐야 할까? 결국 문화예술 정책이 구현하는 ‘공공성’이란 예술이 생산되는 과정과 향유자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평등’이라는 가치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